

전자 CEO에 ‘기술통’ 류재철 미래성장 위한 세대교체 단행

LG그룹, 2026 임원 인사

전자, 사장 2명 등 총 34명 승진
로보틱스·AI 중심 조직 재편
휴머노이드 개발 본격 착수
화학, 신임 CEO에 김동춘 선임



류재철 LG전자 CEO

LG그룹이 세대교체를 전격 단행하며 미래 성장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LG 그룹은 27일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미래인재 등용을 키워드로 한 인사를 단행했다.

LG전자의 경우 2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기술통’으로 알려진 류재철 HS사업본부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LG전자와 함께 LG그룹의 또 다른 핵심 계열사인 LG화학에선 신학철 부회장이 용퇴하고, 김동춘 첨단소재사업본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신임 CEO로 선임됐다. LG이노텍도 자율주행 센싱 부품, 로봇용 부품 등 원천기술 전문가인 문혁수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승진시켜 다양한 분야의 미래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이날 인사에서 사장 2명, 부사장 2명, 전무 9명, 상무 21명 등 총 34명(인도LG전자 2명 포함)이 승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CEO 교체다.

37년간 LG맨으로 지난 4년간 CEO로 일하며 미래 성장을 다진 조주완 사

장은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했다. 그 자리에 ‘기술통’ 류재철 HS사업본부장 사장이 올랐다.

류재철 신임 CEO는 LG전자의 상징과 같은 가전사업의 베테랑 엔지니어 출신이다. 1989년 입사한 류 CEO는 세탁기 엔지니어로 시작해 다른 가전까지 섭렵했다. 지난 2021년부터 생활가전 사업을 총괄하는 H&A사업본부장을 맡아 LG 생활가전을 단일 브랜드 기준 글로벌 1등 지위에 올려놓았다. 특히 지난해 LG전자가 최대 매출을 견인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류 신임 CEO의 공이 컸다. 지난해 H&A 사업본부(HS사업본부로 변경) 매출액은 33조2033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조446억원이다. 류 신임 CEO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전에 적극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LG전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사업 역량 강화

를 위한 조직도 신설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핵심 인프라로 여겨지는 냉난방공조(HVAC)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인수합병(M&A) 담당 조직도 만들었다.

LG전자는 로봇 등 미래 사업 분야에서 신규 사업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최고기술책임자(CTO) 부문 로봇선행연구소 산하에서 담당하던 일부 기능을 이관받아 HS로보틱스연구소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선행연구에 집중했다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 사업화하는 방향에 더 방점을 둔 것이다.

특히 가정용 로봇 영역 미래기술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을 개발해 산업 현장을 시작으로 향후 가정용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CTO부문 로봇선행연구소 산하 휴머노이드로봇태스크를 이끌며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이재욱 연구위원이 HS로보틱스연구소장을 맡는다.

전사 AI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기존 디지털전환(DX)센터와 업무혁신담당을 AI전환(AX)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업무 효율성 증대, 연구개발(R&D) 고도화, 구성원 역량 강화 등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DX센터장을 역임한 조정범 전무가 AX센터장을 맡는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진행된 ‘2025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심사에서 (왼쪽부터)삼보기술단 신병관 부회장(도로및공항기술사), 안상철 ‘아텍’ 대표(조경기술사),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심사위원장), 강형문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가 수상작을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메트로 ‘2025 아파트 조경대상 休&休’ 최종심사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 7곳 선정

‘아크로 베스티뉴’,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이 ‘2025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애티(休&休)’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아파트의 미학 휴애티’에 소개된 30곳의 아파트 가운데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이 정해졌다.

▲테마조경대상 ‘아크로 베스티뉴(DL이앤씨)’ ▲친환경단지대상 ‘휘경자이 디센시아(GS건설)’ ▲브랜드 혁신대상 ‘송도 럭스오션SK뷰(SK에코플랜트)’ ▲스마트환경대상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트레센츠(대우건설)’ ▲조경혁신대상 ‘분당 아테라(금호건설)’ ▲미래가치대상 ‘신검단 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2차(제일건설)’ ▲커뮤니티대상 ‘더샵 일산퍼스트월드(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주인공으로 꼽혔다. <관련기사 12·13면>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수상작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서

구원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심사위원장)를 비롯해 강형문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안상철 ‘아텍’ 대표(조경기술사), 삼보기술단 신병관 부회장(도로및공항기술사), 이정희 메트로신문 전무이사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서구원 심사위원장(한양사이버대 교수)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아파트 테마조경이 늘고 있고, 친환경을 고려한 조경도 확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입주주민들의 만족도와 자부심을 제고하기 위한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아파트 조경대상이 벌써 다섯번째를 맞이했다”면서 “올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은, 4연속 금리 동결... 성장률 전망 상향

치솟는 환율·가계대출 증가 고려 올해 성장률 1%·내년 1.8%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2.50%)를 네 차례 연속 동결했다.

소비·수출 개선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각각 0.9%에서 1.0%, 1.6%에서 1.8%로 상향했다. 각각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p), 0.2%p 올려 잡은 것.

하지만 여전히 1%대 성장과 2% 안팎 물가 흐름, 수도권 주택시장·가계대출·환율 리스크를 이유로 추가 금리인하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

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7·8·10·11월 네 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환 위원이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은 건설투자 부진에도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세가 맞물리며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1.0%, 1.8%로 상향했고, 2027년 성장률은 1.9%로 제시했다.

물가에 대해서 여행·서비스와 농축수산물,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소비자물가가 2%를 다소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1%, 2.1%로 8월보다 높아졌고, 2027년 전망치는 2.0%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과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포스코인터 ‘팜 사업’ 완전체계 구축

삼푸르나 아그로 지분 66% 인수
CPO 생산능력 60만t 규모로 확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팜 원유(CPO) 생산부터 정제까지 이어지는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식량·바이오 사업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국내 기업이 동남아 팜 산업의 미드스트림(Midstream) 단계까지 진출해 완전한 밸류체인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서 포스코그룹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인도네시아 팜 기업 삼푸르나 아그로 지분 65.72%를 약 1조3000억원에 인수했다. 삼푸르나 아그로는 수마트라·칼리만탄 지역에 약 12만8000ha 규모 농장을 보유한 중대형 사업자로, 기존 포

스코인터내셔널의 파푸아 농장을 포함하면 전체 농장 규모는 약 15만ha에 달한다.

이번 인수와 더불어 GS칼텍스와 합작한 정제공장 ‘PT ARC’가 가동되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CPO 생산·정제·유통을 아우르는 완전한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다. PT ARC는 연간 50만t의 정제 능력을 갖춘 중형 설비로, 회사의 CPO 생산능력은 기존 20만t에서 60만t 규모로 확대됐다. 업계는 정제시설 확보로 연간 최대 3000만 달러(약 400억원) 수준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 부문 영업 이익은 올해 상반기 기준 704억원으로, 연간 1000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25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메트로 한줄뉴스



▲감사원 “尹정권 ‘의대 2000명 증원’, 부적정 예측 토대로 추산”
▲김 총리 “전략자산 K뷰티, 기회지만 위험도 있어... 정부가 적극 나설 때” /사진 뉴스스

▲與 의총 “12월 임시국회서 사법개혁안 등 통과 시켜야”... 정청래 “계엄 해제처럼 결연한 자세로”
▲김학자·조숙현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평행선... “당 입장 받아야”
▲국힘, 의총서 “계엄 사과해야” 목소리... 필버 여부는 오후 재논의

“5년간 AI·웹3 생태계에 10조… 디지털자산 글로벌 선도”

네이버-두나무, 글로벌 비전

‘에이전틱 AI’ 새 기회 열리는 시점 양사, 글로벌 혁신 도모에 뜻 모아 AI·블록체인 결합 금융인프라 설계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 만들 것

한 가족이 된 네이버와 업비트 운운사 두나무가 오는 5년간 10조원을 인공지능(AI)과 웹3 생태계에 투자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27일 성남시 네이버1784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결합을 통한 글로벌 진출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26일 각사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기업융합’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네이버와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됐다. 주식교환 비율은 양사의 기업 가치와 주식 수를 고려한 1대 2.54로,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방식이 됐다.

간담회에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3사 최고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최수연 대표는 “블록체인 대중화 흐

름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agentic) AI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맞물린 현재의 기술적 모멘텀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 기회에 글로벌에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자는 것에 네이버와 두나무는 뜻을 함께했다”며 이번 기업 융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치형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네이버의 AI 역량은 웹3와 시너지를 발휘해야만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산업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고,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을 AI·웹3 생태계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조 원은 GPU와 같은 기반 투자와 인재들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될 예정이다.

웹3는 중앙기관 대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소유권과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분산형 인터넷’ 개념이다. 이용자가 데이터와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토큰으로 참여·보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송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도 “앞으로 대부분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유통되는 토큰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번 기업융합을 통해 국경이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B 손해보험

차중위성 3호, 지상교신 성공

KAI, 중형위성 표준 플랫폼 갖춰
향후 위성 수출 사업화 적극추진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화 전환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7일 총괄주관으로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위성 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중위성 3호는 이날 오전 1시 13분 발사된 후, 오전 1시 55분 지상기지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

KAI가 총괄 주관하여 제작한 차중위성 3호는 우주기술확보와 우주과학임무 수행을 위해 제작된 위성으로 기존 1호기에서 개발한 표준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KAI가 독자적으로 국내 개발한 중형급 위성으로 3개의 탑재체는 3개의 기관에서 각각 개발을 수행했다.

차중위성 3호는 향후 3개의 탑재체를 활용 ▲지구 오로라 및 대기관 관측(한

국천문연구원) ▲우주 플라즈마-자기장 측정을 통한 전리권 교란현상 관측(KAIST) ▲바이오 3D 프린팅 기반 줄기세포 3차원 분화배양 검증(한림대학교) 임무를 수행한다.

KAI는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갖춘 중형위성 표준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산화 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위성 수출 사업화 역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체 주도의 저비용 다용도 중형급 위성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KAI의 항공기 수출과 연계한 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 수출 사업화의 가능성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중위성 3호 개발은 향후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전 부품 ITAR-FREE 부품을 적용했고 유사 성능의 해외 위성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계 3종의 국산화 또한 진행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G이노텍 신임 사장에 문혁수 승진

» 1면 ‘기술통 류재철…’서 계속

냉난방공조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 조직들도 재편했다. 먼저 지분투자자와 M&A 등 기회 발굴을 맡는 ES M&A 담당을 신설한다. 해외 지역 현지 완결형 사업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ES해외 영업담당도 새로 만든다.

LG화학에서는 약 7년간 전지 소재 등 신성장 미래 사업과 글로벌 경영 기반을 마련했던 신학철 부회장이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하고 김동준 첨단소재사업본부장이 신임 CEO로 선임됐다.

1968년생인 김 사장은 한양대학교에서 공업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1996년 LG화학에 입사한 이후 반도체소재사업담당, 전자소재사업부장, 첨단소재사업본부장 등 첨단소재 분야를 주요 거쳤다.

LG이노텍의 경우 문혁수 대표이사가 신임 사장으로 승진했다.

문 사장은 특히 차량용 AP 모듈·FC-BGA를 필두로 한 반도체용 부품 사업부터 라이다(LiDAR)·레이더(Radar)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 센싱 부품 사업, 나아가 로봇용 부품 사업까지 회사의 원천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사업을 가속화해 왔다.

/양성운 기자 ysw@

“금리 인하 속도조절… ‘인하·동결 반반’ 조건부 기조 유지”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인하 우위 깨지고 3대3 전망 균형
“정책 전환 아냐” 조건부 시나리오
환율 쏠림·해외투자 과열 우려
부동산·가계부채 금융불안 부각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3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프워드가이딩스)이 인하와 동결이 3대 3으로 같리고, 환율·부동산·가계부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폭 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 인하 기조 유지하되 ‘속도조절’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네 차례 연속 동결하면서도, 향후 3개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인하와 동결을 절반씩 제시했다.

이창용 총재는 “저를 제외한 6명 중 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명은 3개월 후에도 2.50% 수준 유지될, 나머지 3명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회의에서 인하 우위(인하 4명, 동결 2명)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3대 3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이 읽었던 ‘연속 인하 기대’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다만 이 총재는 “현 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논의할 때 어느 누구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지하고하신 분은 없었다”며 금리 인상 시나리

오를 일축했다.

성장 여건에 대해 이 총재는 반도체·IT를 뺀 비IT 부문의 성장률을 내부 계산 기준으로 ‘약 1.4% 정도’로 제시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여전히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웃풋 갭(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차이)이 언제 0에 근접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모델을 보더라도 현재는 의미 있는 마이너스”라며 “아무리 빨라도 2026년 말~2027년 초, 늦으면 2027년 말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 금융안정 리스크 부각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주제는 환율과 국민연금, 해외투자 쏠림이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 “테벨 자체도 중요하지만,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게 있고 그걸 우리나라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면이 우려된다”고 했다. 과거처럼 외채·은행 건전성 위기 국면은 아니지만 고환율이 물가와 분배,

저소득층에 미치는 부담을 경계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부근까지 오른 것에 대해선 “과거 금융위기 국면에서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하거나 은행 건전성이 훼손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고환율이 물가와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고환율이 오래 지속되면 수출업체 일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수업체·저소득층에는 부담이 된다”며 “해외투자로 장부상 수익이 크게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환율이 되돌아올 때 실제 수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개인과 세대간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환율의 한 방향 움직임·쏠림 자체를 금융안정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둘러싼 ‘동원·불모’ 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국민 노후자산을 희생한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프

레이미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환율이 절하될 때 장부상 수익률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라, 나중에 가져올 때 수익률까지 고려해 헤지 전략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제도 안에도 환헤지 여력이 있지만, 손실 책임 부담 탓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선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금융안정을 감안하면 중립금리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 인하를 통해 성장을 더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환율·부동산·가계부채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완전히 종료됐다 보기 어렵지만,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데이터에 기반한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며 “내릴 가능성도, 동결 가능성도 모두 열어둔 조건부 전망”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gh471@metroseoul.co.kr

외국인 韓주식 투자절차 간소화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새로 마련

**정부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정비
개설·배당·보고 절차 전면 명확화**

정부가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외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 계좌개설 방식부터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절차까지 투자자가 가장 어려워했던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투자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통합계좌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문·영문으로 공개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최종투자자가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하나의 계좌로 한국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 증권사를 통해 미국·중국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제도는 2017년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거래내역 T+2 보고 의무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정부는 올해 4월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하나증권-Emperor증권’을 통해 첫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됐고, 이후 삼성·유안타증권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준비에 나선 상태다.

가이드라인에는 통합계좌 개설·운영과 관련된 주요 절차가 세부적으로 담겼다. 해외 금융투자업자는 국내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삼일대리인을 통해 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최종적으로 통합계좌를 개설한다. 계약서에는 한국 감독당국 요청 시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제출 의무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주주권리 행사 방식도 명확해졌다. 통합계좌 명의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는 예탁결제원이 일괄 배정한 배당 권리를 투자자별 보유 수량에 맞춰 분배한다. 의결권 행사 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불통일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 금융투자업자는 최종투자자의 거래 기록을 10년간 보관하고, 매월 말 기준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내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는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제재 이력, 감독당국 인가 여부,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 내부통제 사항을 사전·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통합계좌 개설 주체를 제한했던 금융투자업규정도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규제 특례가 없으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도 자유롭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규정 개정으로 해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 금융그룹

국민의 동반자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필요를 넘어
풍요로운
카드

국내외 해외도
다양한 일상에서도
할인한도 걱정없다

국내외 가맹점
한도없는 할인

My WE:SH+

나에게 꼭 필요한
풍요로운 일상 혜택

음식·통신·KB Pay 할인
병원·주유·쇼핑·스포츠

전부를 위한
천부적인
카드

WE:SH All+

□ KB WE:SH Al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5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4만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4만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4만8천원) □ KB My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5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4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4만4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4만3천원) □ KB WE:SH All+ 카드/전월실적 40만원 이상 시 제공/기타 이용조건 홈페이지 참조 □ KB My WE:SH+ 카드/전월실적 40만원 이상 시 음식점, 편의점, 이동통신요금, KB Pay, 병원, 주유, 오락/쇼핑, 스포츠 월할인한도 5천원/전월실적 80만원 이상 시 음식점, 편의점, 이동통신요금, KB Pay 월할인한도 5천원, 병원, 주유, 오락/쇼핑, 스포츠 월할인한도 1만원/기타 이용조건 홈페이지 참조

■ 연회비: 환원월/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시간(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그 외의 경우: 정상이자율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응금융거래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정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정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 개인신용평정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5-C2b-07985호(2025.06.12~2026.06.11)

KB 국민카드

美 일타뷰티 1위·1400개 매장 진입... ‘대형화 전환점’ 맞는다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K뷰티’ 국가대표로 떠올랐다. 올해 연간 매출 1조원 달성을 예고하며 K뷰티 기업으로서 사세를 확장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뷰티테크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해 K뷰티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7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현재 전통 뷰티 성수기인 4분기에 돌입해 있어 분기 실적 극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광고에 ‘메디큐브’가 송출되고 있다.

이미 올해 3분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9797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2352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누적 매출은

105%, 누적 영업이익은 183% 커졌다.

오는 4분기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새해 등 특수 기간이 계속되면서 쇼핑 행사가 연달아 진행된다. 에이피알은 국내 소비자들은 물론, 연말에 더욱 적극적으로 쇼핑에 나서는 미국 등 서구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출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에이피알은 시가총액으로도 기업 가치를 증명해 냈다. 이달 초 기준, 에이피알 시가총액은 10조원을 넘어섰다. 2024년 2월 말 코스피 신규 상장 당시 에이피알 시가총액은 약 2조원 수준이었다. 올해 들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지난 6월과 8월 국내 대표 뷰티 대기업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차례로 앞지르기 시작하더니 1위로 우뚝 섰다.

이처럼 K뷰티 대형화를 이끌고 있는 에이피알은 해외 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 호조를 이뤘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온·오프라인 채널을 동시 공략하며 브랜드 영향력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은 올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256% 늘어난 3176억원의 누적 매출을 냈다. 이는 전체 누적 매출의 32%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약 530만 개에 달한다.

토너 패드는 화장솜 크기의 패드에 스킨케어 성분을 흡수시킨 형태로, 클렌징, 스킨케어, 마스크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에이피알은 슈퍼시카 토너패드, 딥 비타C 패드, 레드 석시닉 애씨드 패드, 엑소솜 시카 요철 진정 패드 등 차별화된 성분을 갖춘 신제품을 지속 출시했다. 올해는 ‘PDRN 겔 패드’를 새롭게 내놓았다.

아울러 에이피알 제품군의 혁신성은 뷰티테크 기술력에서 확인된다.

에이피알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은 올해 9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500만 대를 돌파했다. 주력 제품인 ‘부스터 프로’는 같은 기간 글로벌 누적 판매 200만 대를 돌파하며 브랜드 전체 성장에 기여했다.

에이피알은 일찍이 K뷰티 영역을 뷰티테크로 확장해 독보적인 경쟁력을 쌓아왔다. 2021년 3월 첫 번째 제품인 ‘더마EMS샷’ 출시한 후 휴미티를 겨냥한 신제품을 꾸준히 연구개발해 왔다.

가장 최근 선보인 신제품은 ‘하이포커스샷 플러스’다. 지난해 9월 선보인 ‘하이포커스샷’을 출시 1년여 만에 재단장한 것으로 스킨부스팅 기능을 더했다. 피부 겹부터 속까지 이중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적용해 온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기술에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스킨부스팅 기술을 결합했다.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연구개발(R&D) 전문 인력을 확보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핵심 기술 자산을 내재화한 것을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 또 서울 가산과 경기 평택에서 에이피알팩토리나 디바이스 생산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제3공장의 경우, 차세대 생산 동력 역할을 한다. 향후 K뷰티에서 K에스테틱으로 주력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에이피알은 해당 공장에서도 자체 개발 공법을 통한 순도 높은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생산한다. 알래스카산 연어를 활용하여 시장에 유통된 기존 PDRN 소재의 순도를 뛰어넘는 원료를 생산하는 한편 직접 생산을 통해 중간 비용을 낮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스킨케어, 뷰티 디바이스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킨부스터부터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신소재까지 고부가가치 뷰티테크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내 K뷰티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한국 뷰티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디큐브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에이피알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과 함께 연금아 불어나라 똑딱!

은퇴 후 자유로운 라이프를 원한다면
지금, KB증권에서 연금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투자를 똑딱!
·개비증권·



은빈개비가 들려주는 KB증권 연금 이야기

연금이 어렵다구요? 개비증권에선 어렵지 않아요. KB증권 연금전문가들이 알려드리는 연금 계좌 활용 노하우!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6시 라이브 웹세미나가 진행되니 놓치지 마세요.

웹세미나
바로가기



*K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132호(2025.08.20~2026.08.19)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향>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IRP 수수료 연 0.20%~0.25%(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펀드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발생

KB증권

AI 이름에 K를 붙였다는 건
우리 소상공인의 힘이 되겠다는 것
KT가 AI 시대를 이끌어갈 한국적인 AI
K intelligence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바라던 매일이 펼쳐지도록

K라는 이름이 가장 빛나게

K intelligence



KT 사장이지

소상공인에 특화된 AI가 다양한 장사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KT의 소상공인 솔루션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K intelligence : KT가 만들어갈 AI상품 / 서비스를 통칭하는 새로운 AI Master Brand 입니다

kt, 당신과 — 미래 사이에

K-스틸법 합의… 추경호 체포동의안은 국힘 불참 속 가결

與野 ‘2+2’ 회동 결과로 본회의 처리 내달 비쟁점 민생법안도 처리 목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계엄해제 표결 방해한 사실 없어”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을 재석 255인, 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의 결과 ‘K-스틸법’은 이날 처리될 7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처리됐다. 여야는 나머지 비쟁점 민생법안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노린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한국 철강 산업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심화, 탄소 규제 강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어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도 K-

스틸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제언을 한 바 있으며, 여야 국회의원 106명은 초당적으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K-스틸법을 일제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K-스틸법 외에도 조속현·김학자 변호사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

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한편, 본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때 계엄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표결 끝에 총 투표 180인,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2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 9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후 두 번째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겠다고 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다음 달 2일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꺾밧취 영장을 창작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본회의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 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당원 1인1표제’, 野 ‘당심 반영 70%’로 내부 시끌

정청래, 당 대표 연임 사전작업 논란 당 약세·소외 지역 부작용 등 우려도

野 일부 의원 “민심 뒤로, 당심 우선 중도·무당층 확대 속 냉정한 평가 필요”

여야가 각각 전당대회들과 공천률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애는 ‘당원 1인1표제’ 개혁 작업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진행 중인데, 민주당 약세·소외 지역에서 일어날 부작용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을 문제 제기 하는 의원

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주당 당헌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같게 해 권리당원의 주권을 제고하자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60대1이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완화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상대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에게 대의원 표에서 뒤졌지만, 권리당원에서 크게 이겨 당대표에 선출됐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이 확고한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여서 당 대표 연임 사전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윤준중·김영배·이언주·강득구

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수 지지세가 높은 영남 지역 등 인구수에 비해 권리당원의 수가 적은 지역에 당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개혁 작업을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현재 ‘1인1표제’를 당헌에 담는 개정안은 당무위를 통과했고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짓기로 했으나, 당내 반발에 다음달 5일로 중앙위 개최가 연기된 상황이다.

정 대표는 “취약지역, 전략지역 위원장들이 이런저런 보완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서 안에 올려져있다”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후보자 경선률과 관련해 현행 50%인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올리고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하면서 하면서 수도권 의원과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의 넓이를 알지 못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민심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결정이 본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심을 뒤로 한 채 당심을 우

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심과 민심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은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조은희·박정훈·고동진·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 40명 중 22명이 참여했다.

나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당심 지지도가 높은 나 의원이 본인에게 유리한 틀을 미리 정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국가 해체 만행에 대응하느라 고민할 겨를도 없지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강조

“野 주장 이유 있을 때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채택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에서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을 전망도 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야당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물론 억지스러운 어저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로 현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빠주기·편드만능공화국’ 예산을 바로잡아 ‘진짜 민생예산’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총 728조원 규모 예산안에서 ‘이재명표’ 예산 4조~5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민생·경제에 필수적인 2조6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중동·아프리카 순방 등 국제 외교의 성과를 구체화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인공지능, 첨단 과학기술, 방위산업, K-컬처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서 공고화된 다층적인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더욱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박태홍 기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진심으로 축하”

李 대통령, SNS서 연구진 등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면서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격려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슴이 벅차오른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 13분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뉴시스

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롭다. 발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고흥 지역 주민분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
완벽한 노후를 위한
기업은행의 결정적 한 수!
”

내일을 이기는 오늘의 **IBK IRP**로
당신이 꿈꾸던 노후를 완성하세요

IRP는 IBK

RA 일임서비스

맞춤형 자동 자산 운용

연금Essay

AI 포트폴리오, 비교분석으로 편리한 연금 관리

수수료 0원 (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비대면 개설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25-05050호 (2505.11.25~2026.03.31)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7506호 (2025.11.05) 유효기간(2026.12.31)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 * 개인형 IRP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수수료는 후취 연 0.00%~
0.28%입니다. *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경우,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별도의 펀드보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개인형IRP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특위 개점휴업… 내년 지방선거까지 논의 지연 우려

정치 변수로 개혁 논의 지연
재정 불안 가중돼 대책 난항
정년 연장 쟁점에 사회 혼선
미래세대 부담완화 해법 필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으로 넘겨졌다.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인상 이후 연금개혁 지속을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지만 대선 등 정치권 현안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적립부채, 구조개혁, 정년연장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본격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4월 출범 당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올해 12월 9일을 활동 기한으로 정했는데, 올해 연금개혁 논의가 불충분했던 만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4월에는 자동조정장치, 수급 연령 조정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다.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한 연금특위는 지난 6월 대선과 지속되는 여·야 대립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지난 9월 21일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서울 시내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부. /뉴스1

자가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 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민간자문위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미적립부채’를 비롯한 쟁점을 논의했다. 미적립부채는 수입을 초과하는 예상 지출액의 총합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남아있는 동안에는 부채를 연금 적립분에서 충당한다. 연금 소진 이후에는 미적립부채가 곧 정부 적자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저출생으로 미래세대가 피부양세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배경이다.

민간자문위는 내달 5일과 19일에도 2·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소진을 막기 위한 국가 재정 투입, 기초연금 등 기타 연금과의 연계성 합리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여겨

진다.

최근에는 ‘정년연장’도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부 내용은 노동계 및 경영계와 협의 중에 있지만, 점진적으로 정년을 늦추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정정년이 늦어지면 국민연금 납입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8~59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60~64세는 희망자에 한해 임의납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더 크고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며, 단기적으로는 연금 적립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총 지급액도 늘어나, 연금 소진을 앞당기게 된다. 국민연금연구

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늘리면 기금 소진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는 내년 하반기에야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연금개혁이 세대를 불문하고 민감한 주제로 부상해있다.

◆ “미래세대 부담 등 대응책 있어야”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98호’에서 “연금개혁의 첫째 과제는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는 3차 연금개혁이 미완성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면서 “연금이 소진되면 비용은 미래세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초저출산으로 노년부양비가 100%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능한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연금급여연동을 평균수명의 연장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국민연금에 국고지원을 하는 방안 등도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 “이들 대책이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 이후에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교보생명

지속가능성 지수

생보부문 1위 수상

교보생명은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지난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생명보험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생명보험 부문 평가를 시작한 2010년 이래 16년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수성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입증 받은 데는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생명보험 부문 1위 수상은 교보생명이 추구해 온 혁신과 지속가능경영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ESG 경영을 고도화해 업계의 모범이 되는 동시에 업의 본질을 실천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외국인 FP 학습 지원

AI 번역 어시스턴트

한화생명은 27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FP의 자격시험 학습을 돕는 ‘AI 번역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출시했다.

AI 번역 어시스턴트는 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 기반의 학습 영상을 제공하고 연습문제와 모의고사까지 다국어로 지원하는 업계 최초의 AI 학습지원 서비스다. 모든 기능은 모바일 기반으로 구현돼 외국인 FP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한화손보

시그니처 테라피 채널

기업 유튜브 최우수상

한화손해보험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한 제11회 2025 올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상식에서 기업 부문 유튜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평생 전문 유튜브 채널 ‘시그니처 테라피’ 개설 1년 만에 거둔 성과로 보험 상품과 멘탈케어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가 주목을 받았다.

시그니처 테라피는 지난해 11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과 함께 선보인 평생 전문 유튜브 채널이다. 기존 보험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정신건강 특약을 보장의 영역으로 확장한 데 맞춰, 일상 속 멘탈 케어를 돕는 명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보험업의 경계를 넘어 고객의 웰니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남양주왕숙 공급 속도낸다… A-24, B-17블록 분양

사전청약 629호, 특공·일반 252호
분양가격 3.3㎡당 1880만원 수준

정부가 남양주왕숙 등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남양주왕숙 지구는 GTX-B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현재 11개 블록, 8000여 호의 주택이 건설 중이며, 내년에 약 1만 호 주택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남양주왕숙 A-24, B-17블록은 총



남양주왕숙 B-17 단지 조감도. /LH

881호다. 사전청약 629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52호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3.3㎡당 1880만원 수준으로 A-24블록 55형은

평균 4억6000만원대, B-17블록 74형은 평균 5억6000만원대, 84형은 6억4000만원대이다.

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경춘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숙역(가칭, 개통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며, 인근에 유치원, 초·중학교 및 대형쇼핑몰, 호텔 등 조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실·주방의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실용적 설계가 적용됐으며,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거주자가 직접 꾸미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강화됐다.

다음달 8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하

며,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남양주시 별내동 816-1에 마련됐으며, 28일부터 사전청약자 우선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토교통부와 LH가 하나로 단합하고 제도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들을 관계부처와 빠르게 협의해 수도권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LH는 9·7대책 공급을 이행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LH의 주택작공 실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이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새마을금고, 100억 투입 ‘부당대출 방지’ 시스템 고도화

사전 탐지 모니터링 체계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의 부당 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종합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1262개 개별 금고 모니터링 등 검사·감독 내부 통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공지능 전환(AI) 전문가기업인 LG

CNS와 협력해 검사종합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프로젝트에 약 100억원을 투입하고, 오는 2027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도화 작업은 금고별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평가 모델을 마련해 금고의 위험평

가 체계 구축을 돕는 한편, 검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시스템 재구축으로 비효율 업무가 자동화되면 인력 부족이 완화되고, 금고 검사·감독 기능과 금융사고 예방 효과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앙회는 2019년 전국 새마을금

고의 검사·감독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금고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초창기 117명이던 검사원은 올해 217명으로 86% 늘었으나 전국 3223개 점포를 2년 주기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돼 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도화된 IT 기술을 기반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상호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철강, AI로 고령화·脫탄소 대응 공정단축·무인화 구조 경쟁력 강화

정부·업계 7000억 투입 DX 추진

포스코 AI로 공정 단축·비용 절감
현대제철 머신비전·LLM 품질 강화
세아제강 디지털트윈·무인운전 검토
동국제강 물류·열처리 AI로 불량 ↓

AI와 자동화 기술이 철강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주요 업체들이 생산 공정을 정밀하게 디지털화하며 효율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가운데, 산업 전반에서도 새로운 전환 흐름이 가속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사들은 인력 고령화와 숙련 인력 감소, 탈탄소화라는 구조적 과제 속에서 디지털 전환(DX)을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다.

포스코는 제강 전(全) 공정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전체 작업 시간을 약 10% 단축해 ‘올해의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예비 공정 완전 자동화로 연간 약 2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딥러닝 기반 스마트 용광로는 연간 8만5000톤 이상의 용선 증산 효과를 거두고 있다. 4족 보행 로봇과 스마트 센서 등 현장 무인화 기술 도입도 속도를 내며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복합제철소의 구조적 강점을 기반으로 공정부분별 특화된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제선 공정에서는 용선 온도 예측과 노환 이상 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압연 공정에서는 머신비전 기반 표면 검사와 실시간 품질 예측 기술로 조업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초고해상도 AI 검사장비 도입으로 아연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부 전경.

/포스코

폐기량을 10% 이상 줄이고 검사 시간은 90% 이상 단축했다. 또 자체 생산 지식 플랫폼 ‘HIP’을 구축해 13만 건 이상의 생산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며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지능형 공정 시스템으로 확장하고 있다.

세아제강은 포항공장을 중심으로 공정 디지털화를 고도화하고 있다. AI 물성 예측과 디지털트윈 기반 설비 자동화 기술을 통해 야간 무인 운전까지 검토 중이다. 대규모 강관 성형 방식인 JCO 용접공정에는 레이저·AI 영상 계측 기술을 도입해 품질 편차를 줄였으며, 재료 투입·적재·성형 등 전 공정에서 정밀 자동화가 정착되고 있다.

동국제강도 물류·열처리 공정을 중심으로 AI 기반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량별 최적 상자 시뮬레이션, 지시서 자동 생성, 재고 관리 지능화 등을 적용해 생산 흐름을 안정화했고, 열처리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품질 균일성을 확보하며 불량 발생 편차를 감소시켰다.

정부도 산업 전환 가속화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현대제철 등과 함께 2025년까지 AI·센서·디지털 인프라·인력 교육 등에 7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철강 디지털전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견·중소 철강·금속사를 위한 디지털전환 실증센터도 구축해 공정 데이터 수집, AI 실증,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 기술의 도입이 비용·시간·품질의 전반적인 혁신으로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호 순천제일대 제철산업과 교수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철강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기반 기술”이라며 “센서·데이터·AI가 결합된 현장 혁신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한국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현대제철, 해외 카바디 학회 참가 기술 교류로 고객 네트워크 확대

MS강판 등 차세대 강종 교류 확대
부스 전시·논문 발표로 성과 홍보

현대제철은 지난 4월 미국 미시간주에서 열린 ‘카 바디 익스피리언스(Car Body Xperience)’를 시작으로 6월 독일 바트나우하임에서 열린 ‘카 바디 파츠(Car Body Parts)’, 10월 ‘유로 카 바디(Euro Car Body)’ 등 주요 글로벌 차체 학회에 연이어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카 바디 학회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 철강사 전문가들이 모여 차체 엔지니어링, 성형 기술, 소재 관련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현대제철은 해당 학회들에서 ▲탄소 저감 강판 및 3세대 강판 등 전략 강종으로 제작한 부품을 전시하고 ▲초고강도강 등 개발 현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홍보 영상과 리플렛을 활용해 신규 고객사 및 글로벌 철강사들과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특히 전시 부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상업생산을 시작한 3세대 자동차강판을 소개하는 한편, 자동차 성능



현대제철 연구원이 미국 ‘카바디 익스피리언스(Car Body Xperience)’에 참석한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3세대 강판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제철

향상과 원가 절감 방안 등을 주제로 기술 미팅을 진행하며 고객사의 과제 해결에 나섰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동수 현대제철 자동차EVI기술팀장은 “이번 부스 전시를 통해 미주 및 유럽 권역에서 현대제철 자동차 강판 솔루션 브랜드(H-SOLUTION)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SK하이닉스,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양성

안성 중앙도서관서 심포지엄 열어

SK하이닉스가 안성시 거주 이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 경기 안성시 중앙도서관에서 ‘2025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AI 어노테이터란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선별하고 가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캠퍼스의 중점 연계 지역인 안성시 내 이주민들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AI 기반 일자리 창출 모델인 ‘AI 데이터플래닛(AI 어노테이터 양성)’ 사업을 도입했다. 안성시는 올해 이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으며 전체 인구의 10%를 이주민이 차지

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AI 어노테이터 양성 사업은 AI 학습용 데이터에 라벨을 부여하는 ‘어노테이션’ 직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이주민 참가자에게는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 참여 등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전체 수료자의 84.6%가 AI·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정상록 부사장(CR 담당)은 “한국어 교육부터 AI 어노테이션 실습, 직무 연계까지 전 과정에서 이주민 참여자들이 디지털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AI 어노테이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가치를 점검하고, 포용적 일자리 모델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中企 복합위기 직면… 정부와 협력 강화”

대한상의 ‘중소기업 위원회’ 개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위원회를 열어 정부와 기업 간 정책 협의와 현장 건의사항을 논의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직접 듣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중소기업 애로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 구인난, 美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과 긴급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노 차관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40조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대전환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지역 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5급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전자서비스, 기술·안전 경진대회 열어

AI 서비스 품질 등 혁신 사례 발굴

삼성전자서비스가 ‘서비스 기술경진 및 안전혁신대회’를 진행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CS아카데미에서 ‘서비스 기술경진 및 안전혁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 대회는 엔지니어의 기술 역량을 높여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해왔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기술경진과 ‘안전혁신대회’가 함께 진행된다. 안전이 서비스 품질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회는 ‘AI 서비스 미래와 안전문화’를 주제로 수리 경진 5종목, 서

스 혁신사례 4종목, 안전 혁신 1종목 총 10종목으로 진행된다.

‘수리 경진’은 서비스 엔지니어의 전문 역량을 평가하며 ‘서비스 혁신사례’는 실제 서비스 현장의 업무 효율을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

올해 첫 실시된 ‘서비스 안전혁신대회’는 안전 혁신사례 경진 부문과 안전문화 확산 행사로 진행된다.

‘안전 혁신사례 경진’ 부문에서는 서비스 현장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작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 ‘안전문화행사’는 임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초빙 안전 포럼 ▲산업안전보건 및 소방안전 퀴즈 골든벨 ▲안전 체합 전시관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차현정 기자

아우디 코리아

‘겨울철 서비스 캠페인’

엔진 등 13가지 항목 무상 점검

아우디 코리아는 고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겨울철 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2025 아우디 겨울철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우디 전 차종을 대상으로 전문 테크니션이 최신 장비를 활용해 타이어, 엔진, 배터리, 히터 등 겨울철 필수 13가지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캠페인 기간 동안 ‘서비스 연장 패키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아우디 순정 액세서리를 증정한다. 스탠다드,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아우디 순정 트렁크박스를, 슬립, 클린, 윈터 패키지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아우디 순정 워셔액(4개)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아우디의 ‘서비스 연장 패키지’는 고객의 기본적인 차량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차량 주행 거리에 따른 필수 정비 아이템과 서비스로 구성된 상품으로 아우디가 권장하는 차량 점검 주기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승용 기자

“매출 1000억·수출 3000만弗 목표… 직원 잘 살게 해주고파”

〈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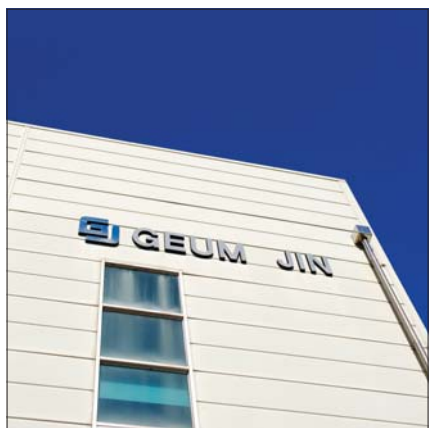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김진현 금진 회장

김진현 금진 회장은 1973년 11월 당시 처음 받았던 급여명세표를 지금도 간직하며 가끔씩 들여다보고 상념에 잠긴다. 김 회장이 당시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에서 받았던 월급은 4만 640원, 갑근세(2276원)와 주민세(113원)를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3만 8251원이었다. 격세지감이다.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직원들이 왜 회사를 다니겠느냐. 돈을 벌러 온다. 대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다. 무엇보다 직원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다.”

김 회장이 50년 세월이 흘렀지만 첫 급여명세표를 자주 쳐다보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 2023년에는 이익의 20%를 임직원들을 위해 쓰



충북 청주에 있는 금진 본사 전경.

“LG건설재 공장장 퇴직, 52세 창업 이익 20% 직원들 위해 쓸 것 약속 직원 가족동반 해외연수 6번 진행

‘실크벽지’ PVC벽지 제조로 시작 국내 유일하게 상업용벽지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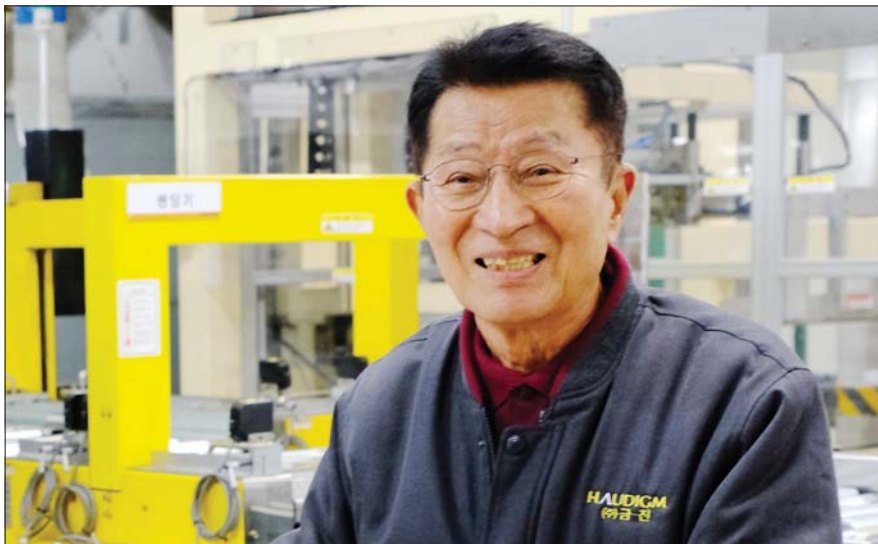
홍콩·중동 등 타깃 해외시장 공략 글로벌 종합 인테리어사 성장할 것

겠다는 약속도 했다. 중소기업에서 쉽지 않은 임직원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도 다 자신만의 경영철학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금진 임직원과 가족 168명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조를 나눠 베트남 푸꾸옥으로 해외여행을 간다. 2007년부터 벌써 6번째 가족동반 해외연수다. 임직원 자신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의 경우 양가 부모까지 회사가 100% 비용을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엔 70%를 대준다. 그렇게 해서 2019년에는 하와이를, 2022년에는 서유럽을 각각 다녀왔다.

“임직원 연수를 위해 회사는 매달 1000만원씩 적금을 든다. 이렇게 해서



김진현 금진 회장이 충북 청주에 있는 공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한번에 3억~4억원 가량 드는 비용을 충당한다. 이는 아예 가용자금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여행비로만 쓴다. 가족 9명이 함께 갔다온 직원도 있다. (웃음)”

김 회장과 금진의 이야기는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다.

김 회장은 LG건설재 제2공장장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1998년에 금진 화학을 창업했다. 당시 그의 나이 52세였다. ‘금진’으로는 2009년에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그 나이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칠순까진 일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청주공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설비들을 뜯어 갖고 나와 창업했다. 그 사이 회사는 13명에서 8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40억원

에서 350억원까지 성장했다. 2002년엔 공장에 불이 나기도 했다. 그것도 결국 전화위복이 됐다.”

‘실크벽지’로도 불리는 PVC벽지로 시작한 회사는 이후 상업용벽지, 인테리어 필름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호텔 등에 주로 쓰는 상업용벽지는 국내에선 금진이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의 경우 외국에서 들어온 벽지가 소방 안전 등 국내 규격에 맞지 않아 금진의 제품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다.

금진 김국용 대표는 “회사는 국내 최초로 수용성 잉크를 사용해 친환경 벽지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KS제품 인증도 업계에서 처음으로 받았다. 이와 함

께 고내구성과 고감성 인테리어 소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벽지 포장 자동화 시스템 및 로봇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친환경 건축자재 대표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진은 제2의 도약을 위해 오래부턴 해외시장 공략도 시작했다. 건축용 단열재인 폐페놀폼을 재활용한 재활용 데크도 개발해 양산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김 회장은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고환율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돌과 구는 해외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외 수출은 홍콩, 마카오와 중동, 대만 등이 우선 타깃이다. 인도네시아와 쿠웨이트에는 일부 제품을 수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사업인 폐페놀폼 재활용 데크는 목재를 대체해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버려지는 단열재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에도 큰 보탬이 된다. 자외선이나 온도·습도 등에 강하고 부식, 변형, 갈라짐 등이 거의 없는 게 장점이다. 재활용 데크 역시 동남아 등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그는 “회사는 2030년 매출 1000억원, 수출 3000만 달러를 통해 글로벌 종합 인테리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따르는 리더십’으로 이끌고 있는 충북의 강소기업 금진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청주(충북)=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체온따라 온도 조절… 숙면 돕는 ‘3세대 카본매트’

귀뚜라미, 난방매트 시장 세대교체 ‘카본열선’ 소재, 강도 강철의 5배

입면·숙면·기상 단계별 온도 변화 피로회복 돕는 ‘찜질모드’ 등 갖춰

귀뚜라미가 난방을 넘어 숙면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기술적 해석을 더해 ‘3세대 카본매트’를 선보이며 난방매트 시장의 세대교체를 이끌고 있다.

27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3세대 카본매트는 체온리듬 기반의 자동 온도 제어 기술과 맞춤형 숙면 모드로 ‘숙면 가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했다.

귀뚜라미가 난방매트 시장에서 보일러 기술 60년, 온수매트 기술 10년을 집

약해 내놓은 결론은 ‘이제는 온수가 아닌 카본’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이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프리미엄 KMF 시리즈의 핵심은 수면 단계를 입면, 숙면, 기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고 체온 변화에 따라 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온도 과학’이다. 입면 구간에서는 체온을 안정시키기 위해 온도를 서서히 낮추고, 숙면 구간에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깊은 잠을 유도한다. 또 기상 구간에서는 천천히 온도를 올려 부드러운 아침을 맞게 한다.

사용자는 각 단계의 시간과 온도를 1℃ 단위까지 조절할 수 있어 개인별 수면 리듬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 숙면 패턴’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피로 회복을 돕는 ‘찜질모드(최대 55℃)’, 장시간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취침모드(33℃·9시간)’ 등 다양한 기능이 더해져 완성도 높은 숙면 환경을 제공한다.

카본매트의 열원은 강철보다 5배 강한 아라미드 소재의 카본열선이다. 80만 회 굽힘 테스트를 통과한 높은 내구성 뿐만 아니라 EMF(전자기장환경) 인증을 통해 전자파 우려를 해소했다. 물 순환 구조가 아니라 열선 기반이기 때문에 누수나 세균 번식, 물 빠기·보충 등 온수매트의 고질적 불편도 사라진다. 펌프 소음이 없어 ‘조용한 따뜻함’을 제공한다는 점도 사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는 160W의 저전력 설계로 온수매트(약 300W 대비)의 절반 수준의 전력만 사용한다. 하루 8시간 사용 기준 월 전기료는 약 7000원으로, 에코모드를 사용하면 추가로 약 20%의 절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카본매트의 원단에는 쾌적함과 위생을 위한 다양한 소재 기술을 적용했다. 오스트리아 렌징사의 텐셀 원단, 은이온(Ag+)을 함유한 에어로실버, 탈취 효과가 뛰어난 큐어셀 원단을 결합한 프리미엄 소재는 쾌적한 촉감과 위생성을 동시에 갖췄다. 퀼팅 구조로 침구류 역할을 병행하며, 세탁기 워셔블 테스트 및 아동용 섬유 안전 기준도 충족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위커히에서 열린 ‘2025년 공공구매 촉진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진공

공공구매 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공공구매 유공 분야 최고 훈격인 ‘공공구매 우수 공공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7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공구매 유공 표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주관하는 정부 포상이다.

소진공은 공공구매 정책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공공구매 전 제품군(중소·기술개발·여성·장애인·창업)의 법정 의무구매율을 모두 초과 달성하는 등 공공구매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소진공은 전사적 공공구매 실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우선구매 실적 모니터링 기능을 마련하고 우선구매 달성도를 직원 평가에 반영하는 내부 성과지표를 신설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국가 재난시 물류 책임진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선정

CJ대한통운 등이 물류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됐다. 27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회사는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선정됐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재난관리지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설된 제도다. 재난의 유형이 진화하고 강도 또한 강해짐에 따라 민간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국단위 물품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등 재난물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신규 지정 공모를 내고 접수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1·2차 평가를 거쳐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비지이프로지스를 선정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비렉스 ‘마사지샷·코어샷’ 출시

의료기기 신제품… 모델에 차승원

코웨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기 ‘비렉스(BEREX) 마사지샷·코어샷’을 출시하고 광고 모델로 배우 차승원을 선정했다.

27일 코웨이에 따르면 배우 차승원이 지닌 품격 있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와 꾸준한 자기관리의 상징성이 비렉스 신제품 ‘마사지샷·코어샷’의 콘셉트와 부합해 이번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차승원을 모델로 한 이번 광고는 코웨이 슬립 앤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의 의료기기 신제품이 지닌 기술력과 신뢰감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코웨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비렉스의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코웨이 비렉스 마사지샷·코어샷 신규 광고는 TV, SNS,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건강창업의 모든 것!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휘경자이 디센시아

GS건설

나무·물소리 가득... 단지 내서 사계절 한눈에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 동, 총 1806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39~84㎡ 중소형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단지는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3개 노선이 정차하는 회기역과 1호선 외대앞역까지 도보로 닿을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근처 청량리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봉역 인근에 코스트코 등 대형 편의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근거리에 있고 중랑천이 인접해 운동과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 자작나무원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버치 힐 가든'에서는 이어진 철길을 따라 걸으며 안개분수의 청량함을 느낄 수 있다. '에코블루 엘리시안 가든'에는 커다란 팽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숲이 피었다. 함께 조성된 '수생비오톱'은 깨끗한 물에서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곤충과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고 여러 식물을 심었다. 환경 친화적 단지로 '전환경단지대상' 선정의 이유로 꼽혔다.

대왕 참나무와 휴게데크가 맞이하는 '오크가든', 나무와 물소리가 배경이 되는 '리빙 가든', 테라스 아래 드넓은 전경을 바라보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 가든',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와 물줄기가 어우러지는 '보더 가든'에서는 조용한 물소리와 함께 계절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아크로 베스티뉴

DL이앤씨

'기하학적 공간'·'가든 스퀘어'... 예술 품은 단지

DL이앤씨가 시공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크로 베스티뉴'는 지하 3층~지상 37층, 10개 동, 총 1011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타입별로는 60㎡, 86A㎡, 87B㎡, 103B㎡, 114㎡로 구성돼 있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된 만큼 회사는 커튼월 록과 저층부 석재 적용으로 외관 디자인의 품격을 높였다. 메인 도로와 인접한 일부 주동에는 측면 수직 조명을 적용해 단지 상징성도 부각했다.

단지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기하학적 공간'이 보인다. 산, 물, 대지와 같은 자연의 유기적 형상을 재해석했다. 직선과 곡율, 공간의 풍경을 나누고 재조합해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테마조경대상' 선정의 배경이 됐다. 김용관 작가의 '대청행렬' 조각상들도 단지의 정갈함을 나타낸다. 여러 모듈을 무작위로 쌓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패턴을 규칙으로 삼아 다시 쌓기를 반복해 만들었다.

단지 중앙에는 수경시설과 어우러진 '가든 스퀘어'가 조성돼 있다. 넓게 펼쳐진 잔디 마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정돈된 식재와 석재 디딤 공간이 배치돼 입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거닐고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든 스퀘어 한쪽에는 입주민 전용 '가든 컬렉션 카페'가 마련돼 있어 일상 속 휴식과 여유를 더한다. 자연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은 외부로부터의 단절감과 단지 내부의 개방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소다.

/안상미 기자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파인베르

대우건설

에베레스트·무드셀라 조형물로 완성한 특화 조경

대우건설이 시공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파인베르'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들어선 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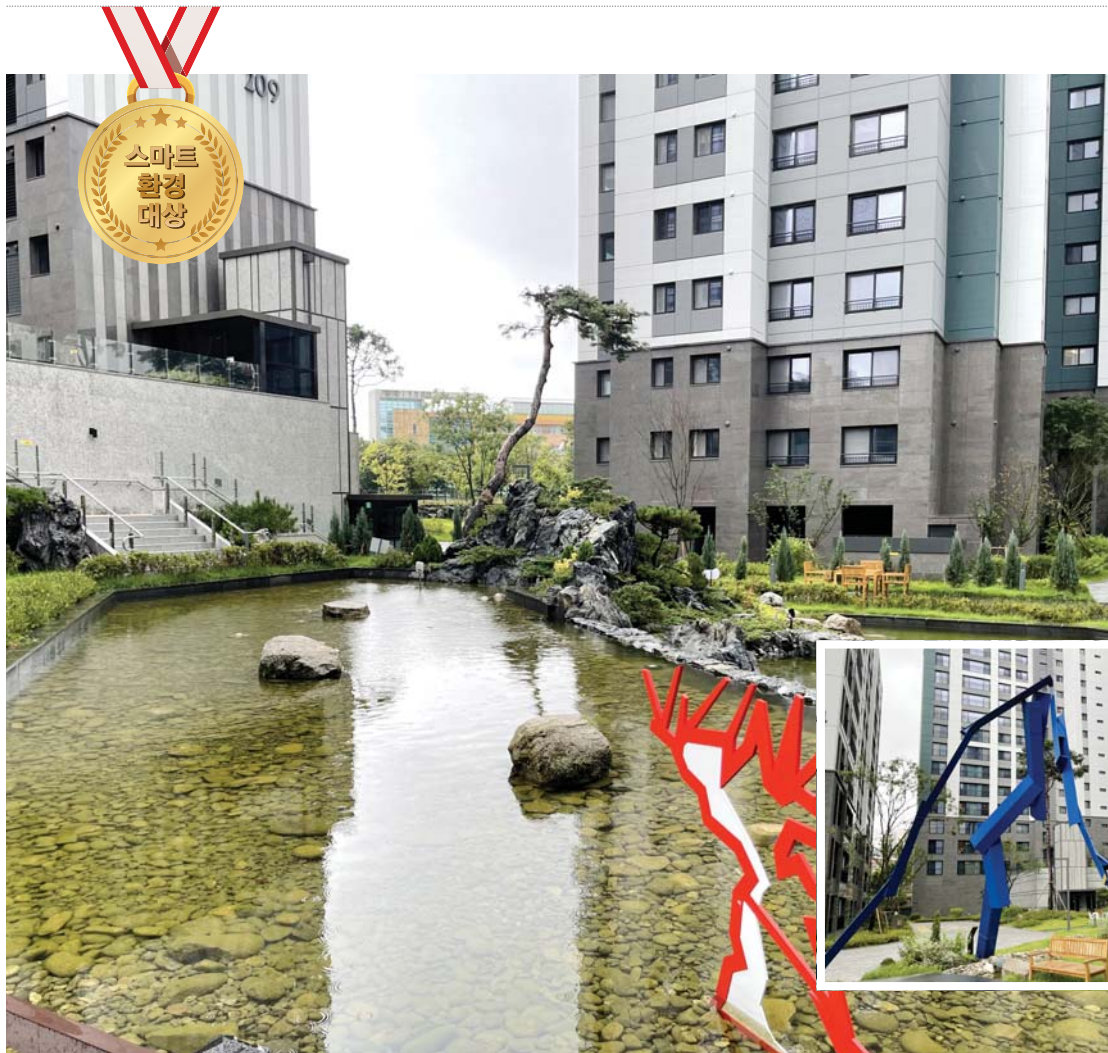
트레센츠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4층 13개 동, 총 796가구 규모며, 파인베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2층 11개 동, 총 770가구 규모다. 두 단지 모두 전용면적 84㎡, 105㎡로 이뤄져 있다.

맞이정원은 만남의 장이 되는 공간으로 이웃간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곳이다. 윈터가든에서는 겨울 철에도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숲속놀이터는 숲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공간이다. 육생비오톱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인 공간이다. 나비와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들꽃과 나무를 심고 새집과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단지 한가운데에는 웅장한 석가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름은 '비원'으로 '되다'라는 뜻의 비(be)와 둥글다는 뜻의 한자 '원(圓)'의 합성어다. 푸른 조형물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늘을 향해 솟은 이 조형물은 끝없는 도전과 발전을 상징하며 입주민들이 더 높은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스마트환경대상' 선정의 배경이 됐다.

붉은 조형물 무드셀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인 '무드셀라'에서 영감을 받았다. 4850년의 생명을 이어온 나무로 입주민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상미 기자





송도럭스오션SK뷰

SK에코플랜트

테마정원·친환경으로 랜드마크 도약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는 지하 2층~지상 49층, 7개동, 총 1114가구 규모다. 타입별로 보면 ▲84㎡ 1002가구 ▲130㎡ 88가구 ▲88㎡T 8가구 ▲96㎡T 2가구 ▲97㎡T 2가구 ▲104㎡T 2가구 ▲105㎡T 2가구 ▲137㎡T 2가구 ▲139㎡T 2가구 ▲141㎡T 2가구 ▲143㎡T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송도럭스오션SK뷰는 대단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넓은 필드 등을 갖췄다. '브랜드혁신대상'의 배경이 됐다.

클레이정원은 따뜻함을 주는 점토벽돌 가벽을 이용한 색다른 느낌의 정원이다. 북카페정원은 북카페 주변 흐르는 물소리와 아름다운 조명을 느끼며 잔디광장의 경치를 느낄 수 있는 휴게시설이다. 독서정원은 실내 북카페를 나와 야외에서 차 한잔과 독서를 할 수 있는 정원이다.

비오토피아 가든은 자연의 5대 요소인 물, 돌, 바람, 나무, 빛을 이용한 친환경 공간이다. 조형과고라 아래에서 거대한 석가산과 팽나무, 잔디광장 등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코지정원에서는 계절따라 변화하는 단풍나무 아래 넓은 잔디광장과 북카페와 비오토피아 가든을 바라볼 수 있다.

오크정원은 대왕참나무로 둘러싸인 휴게공간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분당 아테라

금호건설

암석원·수경시설 품은 '예술 조경 단지'

금호건설이 시공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지상 21층, 4개동, 총 24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4㎡ 71세대 ▲84㎡A 71세대 ▲84㎡B 30세대 ▲84㎡C 70세대 등이다. 분당 아테라는 성남시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면서 들어섰다.

금호건설은 아테라만의 정체성을 살려 암석원과 수경시설, 미술작품 등 예술적 감성이 녹아든 조경 특화를 적용했다.

탐골공원을 걷다보면 공원의 일부인듯한 벽화가 단지의 경계다. 벽화는 바다의 파도, 물의 흐름, 파동, 산의 형세, 바람의 모습 등 자연의 다채로운 형태들을 표현해 새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벽화에서 단지 입구쪽으로는 가면 웅장한 자연의 경관을 그대로 옮겨와 조성한 석가산이 나온다. 기암괴석과 조화로운 수목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산수화 같은 자연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조경혁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단지 내로 올라가면 필로티와 연계한 테마 정원과 수경시설이 나온다. 공원 속 식물원처럼 출입구 쪽으로는 대형목으로 식재를 하고, 안쪽으로는 사계절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초화류를 배치했다.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역시 자연을 모티브로 했다.

/안상미 기자



더샵 일산퍼스트월드

포스코이앤씨

다채로운 특화공간으로 '주거 품격' 높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더샵 일산퍼스트월드'는 총 2090가구 규모다.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8개 동,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6층 6개 동, 3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4개 동이다. 전용면적 64~84㎡ 등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1, 2단지는 풍산역, 3단지는 백마역과 인접했다.

블루밍라운지는 단지 속 작은 정원 같은 휴식처다. 곡선 형태의 하얀 구조물과 돌담이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붉은 파라솔과 벤치가 배치돼 입주민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완성한다. 그린어스그라운드스 친환경 주민운동 공간이며, 네이처테라스는 단지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여유로운 휴식의 무대다.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커뮤니티대상'에 뽑혔다.

뷰테라스는 단지의 풍경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닥에는 조형적 감각이 돋보이는 조약돌 모양의 좌석이 놓여 있어 여유롭게 앉아 사색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기 좋다.

미라지포레는 단지 속에서 자연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정원이다. 불규칙하게 놓인 돌과 울창한 초목이 어우러져 숲길을 연상시키며 곳곳에 심어진 나무는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안상미 기자



신검단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

제일건설

전통미와 현대 조형미 더한 감성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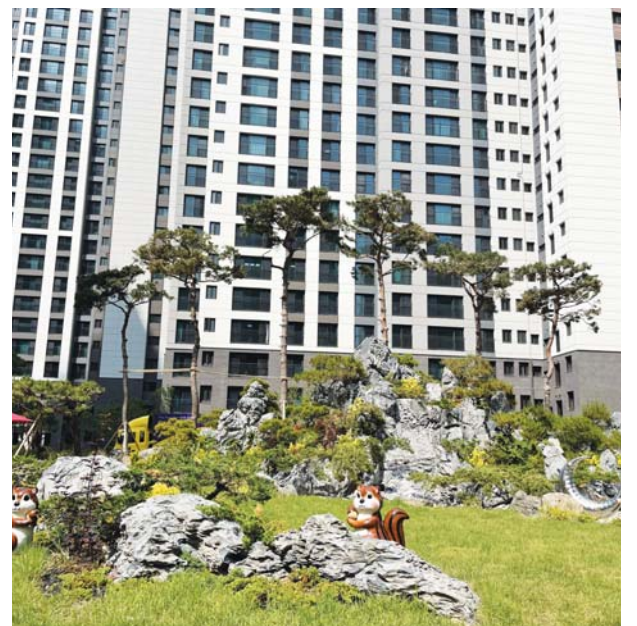
제일건설이 시공한 '신검단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전용면적 74~84~110㎡ 총 1734가구로 구성됐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앞에 검단3고등학교가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이다.

단지 중앙에 조성된 '물결마당'은 유려한 곡선의 포장 패턴과 넉넉한 휴게 공간이 어우러졌다. 바다 곳곳에는 물줄기가 분사되는 분수 설비가 숨겨져 있어 계절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며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힐링정원'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머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한다. 곡선형으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짙은 초록의 수목과 풍성한 초화류가 시야를 감싼다.

단지의 상징목은 제주도에서 온 팽나무이다. 성산일출봉 옆 구좌읍 종달리라는 해변가 절벽 위에서 190년을 살다가 이사 온 이 팽나무는 2021년부터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단지에 오게 됐다.

'팽나무마당'은 단지 내 조경의 중심축 같은 공간으로 굵은 줄기를 자랑하는 팽나무들이 마치 하나의 숲처럼 들어서 있다. 고요하게 뻗은 수목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녹음, 화산석을 쌓아 만든 정원형 구조물 등은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설계가 절묘하게 결합했다. '진경산수원'은 전통 회화 속 산수경관을 모티브로 조성된 테마정원이다.

/안상미 기자



韓-EU, AI·배터리 등 첨단기술 넘어 경제안보 공조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교류 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협력’ 의견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차·배터리 등의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에서도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서울 모처에서 헨나 비르쿠넨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에 더해 ‘공급망’이 협력 분야에 포함됐다. 이는 양측이 경제안보에도 중점을 둔다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기술주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EU) 본부.

/AP 뉴시스

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고도 전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 및 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어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한국: 메모리 제조,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I와 관련해 우리 측은 EU의 산업 데이터플랫폼 ‘Manufacturing-X’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Manufacturing-X의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데이터 연계·활용의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또 산업 전반의 AI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AI 표준 서밋에 EU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미래차 관련 주요 협력 부문은 탄소 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통신·데이터 등으로 합의됐다.

배터리는 현지 수요 확대를 위한 EU 자원의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측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EU 내 투자를 통해 첨단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EU 배터리법’의 후속 입법 일정 이 지연되면서 우리 기업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에 입법과정에서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유레카(Eureka)’ 등 다자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한 성과를 재확인하고, 향후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2009년 비유럽국 최초로 유레카에 가입한 이후 IT와 기계소재,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유럽과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이사국으로 선임된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계기로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사업체종사자 수 두달째 ↑… 건설업은 ‘한파’

고용노동부,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증가 견인
건설업 8.1만명 줄어 감소폭 확대

지난달 기준 국내 사업체종사자가 2개월 연속으로 1년 전보다 늘었으나 제조·건설·도소매업 종사자 수 감소는 지속됐다. 특히 건설업 감소 폭은 9월에 줄었다가 10월에 다시 확대됐다. 근로자 실질임금은 전년동월 대비로 5만 1000원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사업체종사자 수는 2035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에 비교해 2만 3000명(0.1%) 증가한 수치다.

사업체종사자 수는 올해 1월 5만 5000명 감소한 이후 8월까지 반등하지 못하다가,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9000명)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만 9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 9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9월 종사자 수 감소가 6만 1000명에 그치며 올해 최소 감소 폭을 기록했던 건설업은 10월 들어 8만 1000명 줄어들면서 폭이 다시 커졌다.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도 각각 2만 5000명, 1만 7000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에서 1682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7000명 감소(-0.2%)했고, 300인 이상은 353만 4000명으로 5만 명 증가(1.4%)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2만 5000명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만 8000명 증가했다. 기타종사자는 2만 명 감소했다.

10월 입직률은 4.3%로 0.4%포인트(p) 하락했고 이직률도 4.3%로 0.2%p 하락했다.

이직 사유별로는 자발적 이직은 24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4% 감소했다. 비자발적 이직은 52만 9000명으

로 3.7% 감소했고, 기타 이직은 5만 1000명으로 2.7% 증가했다.

새로 채용된 인원은 상용직의 경우 26만 5000명으로 15.5%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역시 52만 명으로 5.7% 감소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올해 9월 기준 433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4년 9월(430만 1000원)과 비교해 3만 1000원 늘었다.

하지만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0만 1000원으로, 전년동월(375만 1000원)과 비교해 5만 1000원 감소했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나해에는 추석이 9월, 올해는 10월이기 때문에 명절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해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음력을 기준으로 명절을 쇠기 때문에 임금에서 명절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4.9시간으로 1년 전보다 25.4시간 늘어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소비쿠폰 효과, 가구당 실질소득 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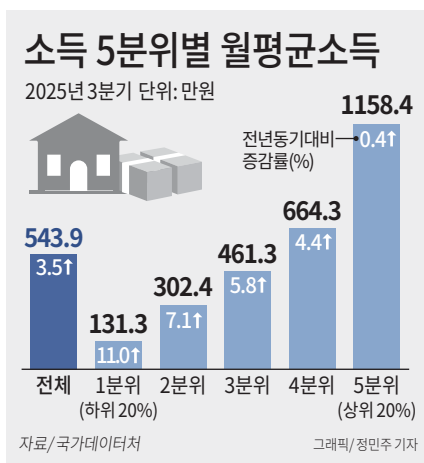
데이터터치,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올해 3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1.5% 증가했다. 특히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터치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9월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 3000원으로 전년 동분기에 비해 11.0% 늘었다.

1분위의 소득 증가율(11.0%)은 지난 2022년 2분기(16.5%) 이후 13개 분기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소득 항목별로 1분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28.7%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아동수



당, 노인기초연금, 실업급여, 각종 한시 지원금 등 정부가 가구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을 뜻한다.

특히 이번 3분기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경 기반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직접적으로 뒷받침된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aT ‘빅스퀘어유니언 플러스’ 출범

7개 기관과 데이터 협의체 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관들과 데이터 협의체 ‘빅스퀘어유니언 플러스’ 출범을 선언했다.

27일 aT에 따르면 빅스퀘어유니언 플러스는 국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기관 연합체다. aT는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인 농식품 빅데이터 거대소(KADX) 운영 주체로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는 ▲농식품 부문(aT)을 비롯해 ▲공간융합(한국국토정보공사) ▲교통(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문화(한국문화정보원) ▲부동산(한

국부동산원) ▲산림(한국임업진흥원) ▲연안(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8개 운영기관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공동 홍보 ▲데이터 기반 협력과제 발굴 ▲데이터 기업 간 교류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정책 지원과 국가 AI 전략과제 실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aT는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식품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AI 정책 혁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텃밭조성 등 ‘도시학교 스쿨팜’ 확대

농협중앙회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도시학교 스쿨팜’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는 과정인데, 농협이 여러 분야에서 추진 중인 농심 전심운동의 일환이다.

농협은 그간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시도교육청(교육지청),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스쿨팜을 운영해 왔다.

해당 학생들은 ▲텃밭조성 ▲씨앗심기 ▲수확 ▲관찰일지 작성 등으로 농업을 체험하고 식체험, 김장체험 등을 통해 우

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또 시니어사업단(팜 코디네이터)을 통한 텃밭관리 및 교육도 실시 중이다.

2025년도 농협미래전략연구소의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초·중·고 교과과정 내 농업·농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선호하는 교육과정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식 교육(42%), 농촌생활 체험 실습(23%), 농업 분야 직업 교육(16%), 텃밭가꾸기(10%), 전통식문화 교육(김치의 역사, 장담그기 등) 순으로 조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도권매립지공사 숙련도평가 전항목 ‘만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올해 실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및 미국 환경자원학회(ERA) 숙련도평가에서 모든 항목 ‘만족’ 판정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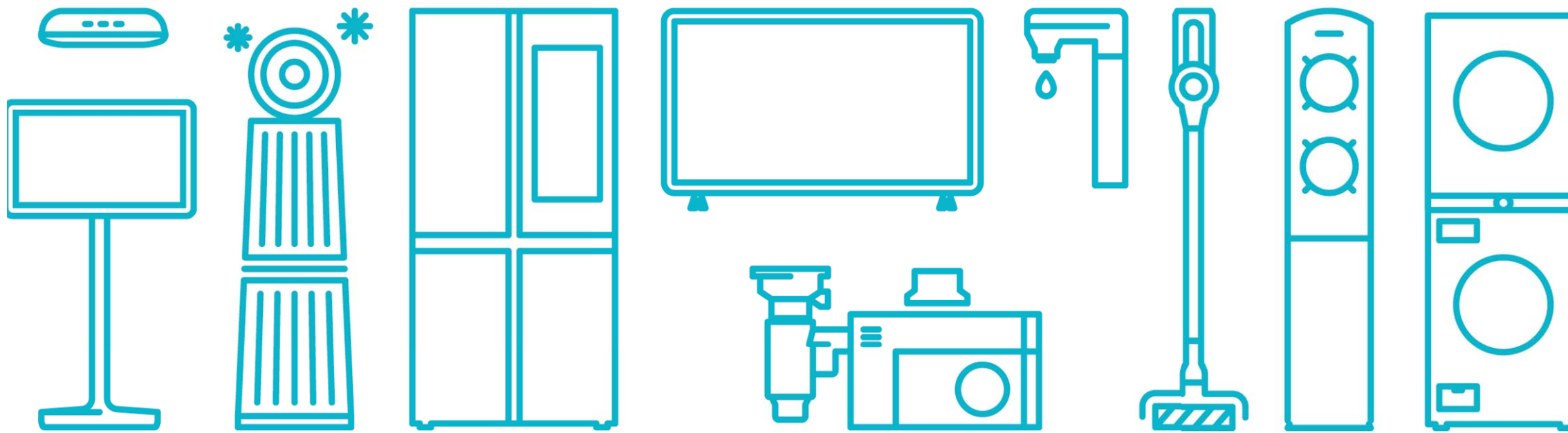
이에 환경분석 전문가관으로서의 역량과 국제적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국내 숙련도시험’에서 수질 16개, 폐기물 7개, 악취 8개 등 총 31개 항목 전부 만족 판정을 획득하며 종합평가 결과 ‘기관적합’ 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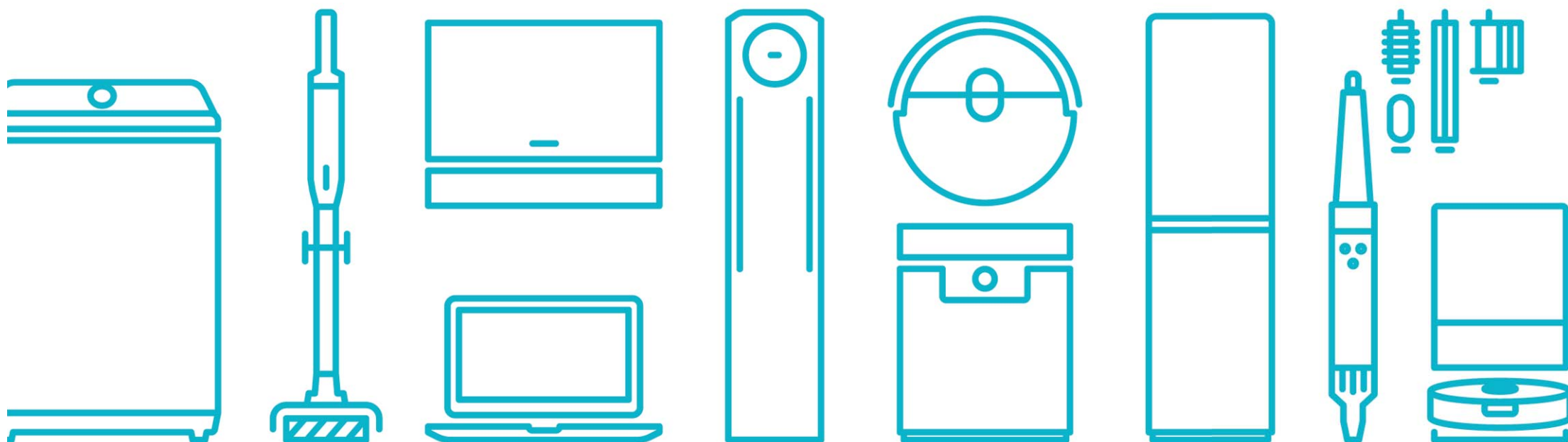
/세종=김연세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일시불로 안샀다 헬로렌탈로 잘샀다!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중·고교생이 가장 하고싶은 직업은?… ‘교사’ 11년째 1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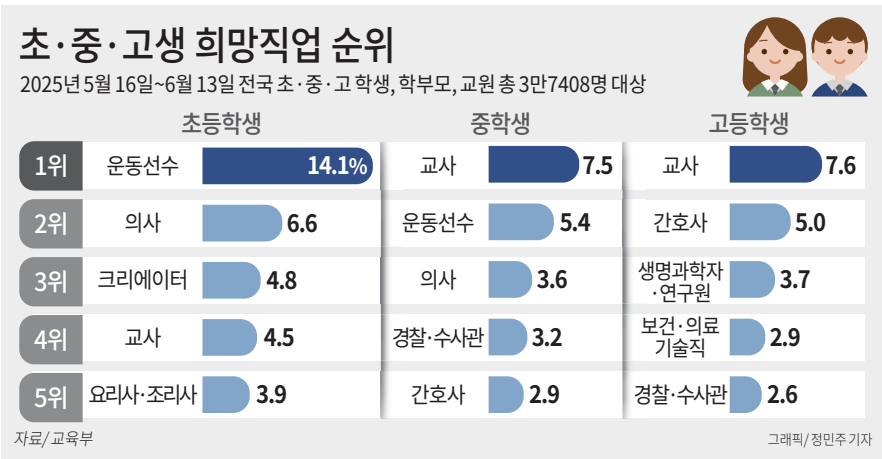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 ‘운동선수’
고등학생 ‘생명과학자·연구원’ 순위
지난해보다 4계단 올라 3위 차지

중·고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여전히 교사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의 희망직업 순위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 3위로 4계단 올랐다.

27일 교육부와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3만74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만2911명 중 1만6145명(70.5%)으로, 초등학생 5357명, 중학생 5110명, 고등학생 5678명이었다.

희망직업 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1위 운동선수(14.1%), 2위 의사(6.6%), 크리에이터(4.8%) ▲중학생은 1위 교사(7.5%), 2위 운동선수(5.4%), 의사(3.6%) ▲고등학생은 1위 교사(7.6%), 2위



간호사(5.0%), 3위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3.7%) 순이었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순위는 운동선수(14.1%)로, 2018년부터 8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특히 남학생 중 운동선수 선호가 22.5%로, 여학생(5.9%) 대비 크게 높았다.

2위는 의사(6.6%), 3위는 크리에이터(4.8%)였다. 크리에이터는 2024년 교사를 밀어내고 3위로 오른 뒤, 2년 연속 순위를 지켰다. 교사(4.5%)는 4위를 유지

했다.

중·고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교사였다. 국가 승인통계가 된 2025년 이래 11년째 1위를 지켰으며, 올해 ‘교사’ 희망 비율은 중·고등학생 모두에서 전년 대비 증가(중 6.8→7.5%, 고 6.9→7.6%)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초등학교 남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의 성별에서 상위 5개 직업에 포함됐다.

중학생 2위는 운동선수(5.4%), 3위는 의사(3.6%)로 전년도와 비교해 순위 변

동이 없었다. 2023년까지 2위 의사, 3위 운동선수 순이었으나, 2024년부터 2년 연속 2위 운동선수, 3위 의사 순위 유지되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의 희망직업 순위가 지난해(7위)보다 상승해 3위를 차지했으며, 10위 밖에 있던 보건·의료분야 기술직도 4위로 크게 올랐다. 반면 군인은 3위에서 6위로 하락했다.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는 초·중학생은 소폭 하락(초 4.08→4.05점, 중 3.74→3.73점)했고, 고등학생은 3.67점에서 3.75점으로 증가했다.

진로 활동별 만족도의 경우,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0점, 중 3.89점)’, 고등학생은 ‘진로동아리(고 3.91점)’ 활동 만족도가 높았다. 진로체험 참여 희망 비율(초 83.7%, 중 87.4%, 고 88.1%)은 초·중·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묻는 항목에서,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이 2023년 77.3%에서 2024년 66.5%, 2025년 64.9%로 연속 감소한 반면, ‘취업 희

망’ 비율은 2024년 13.3%에서 올해 15.6%로 증가하고 ‘진로미결정’ 비율은 12.0%에서 11.2%로 감소했다.

중학생의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 희망 비율은 91.1%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미진학은 2.1%, 진로 미결정은 6.8%로 집계됐다.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진로전담교사 모두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을 주로 꼽았으며, 이어 ‘예산 및 환경 지원’, ‘전문인력 확보’ 순으로 응답했다.

김전홍 책임교육정책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적용, 인공지능의 발전 등 교육 변화를 반영해 학교 진로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진로활동과 교원 역량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충실하게 초·중등 진로교육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구로초, IB PYP 월드스쿨 인증 획득

〈국제바칼로레아 초등 교육과정〉

서울 첫 IB 인증학교로 혁신 실현 중학교·고등학교까지 확대 계획

서울 지역 공교육 현장에 국제바칼로레아(IB) 초등 교육과정이 본격 도입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구로초등학교(교장 김정순)가 이날 서울지역 최초로 국제바칼로레아 초등 교육과정(PYP) 월드스쿨(WorldSchool) 인증을 획득했다.

IB PYP 인증학교는 IB 본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아 IB 초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국가 교육과정에 PYP 프레임워크를 접목해 탐구단원과 학교별 탐구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학습과정과 결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성장중

심평가를 적용한다. 교수언어는 자국어인 한글이며 학교 전반 운영에도 IB 체제를 반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 개발을 위해 2022년 하반기 IB 자문·연구단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31개 학교(초 15교, 중 16교)를 IB 탐색학교로 지정했다. 2025년 현재 IB 관심·후보·인증학교는 총 114곳(초 58교, 중 41교, 고 15교)으로 확대됐다.

서울구로초는 2023년 IB 탐색학교 운영과 IB 관심학교 등록을 시작으로, 2024년 IB 후보학교 승인을 거쳐 올해 PYP 월드스쿨 인증을 받게 됐다. 학교는 IB 탐구 프로그램(POI)과 ‘구로 WISE R 탐구 모형’을 기반으로 IB 프레임워크

와 학교 특색을 반영한 교수·학습 모델을 구축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IB 중학교(MYP)와 고등학교(DP)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IB 단계별 연수(입문·기초·기본·심화), 연구학교 지정, 정책연구 등을 통해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KB)’의 이론적 기반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첫 IB 인증학교인 서울구로초가 학교 단위 수업·평가 혁신 모델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교육 특색 속에서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KB)’ 구축의 초석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판교 그레비티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회 펍리스인의 날’.

/성남시

성남시, ‘K-펍리스 테크포럼’ 열어

최신 기술 공유, 기업 협력 확대

성남시는 26일 오후 판교 그레비티 조선호텔에서 ‘2025 K-펍리스 테크포럼 및 제3회 펍리스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성남시 주최, 한국펍리스산업협회(KFIA)·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공동 주관으로 국내 펍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 협력을 목표로 마련됐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KFIA·KETI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1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 매칭,

공동 R&D, 교류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집적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테크포럼에는 암코리아, 시놉시스코리아, 지멘스 EDA 코리아, 케이던스 코리아 등 글로벌 EDA·IP 기업이 참여해 AI 기반 설계기술과 차세대 IP 동향을 발표했다. 국내 펍리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최신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했다.

이어 열린 ‘제3회 펍리스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산업 발전 유공자 16명에게 부총리·장관·성남시장·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허위광고·무자격 중개’ 의혹 부동산 집중조사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부터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등 적발

“수도권 빌라 1억대 매물”처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자격도 없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긴 채 안내와 상담을 도맡아온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시민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관외 지역의 매물을 대량으로 등록해 놓고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매물장(의뢰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자, 시는 해당 등록관청인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을 표시·광고 및 사실과 다른 사진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오피스는 비워둔 채 부동산 플랫폼에 게재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담·안내·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위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도 확인됐다. 시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의 광고 및 중개행위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광고를 직접 게시하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현진 기자

양주시, 서울 강남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내년 하반기 운행 시작 예정

양주시가 지역 교통 숙원사업이었던 서울 강남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노선선정 심의위원회는 양주~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을 포함한 9개 신규 노선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이후 2023년 1304번, 2025년 1306번에 이어 세 번째 대광위 준공영제 신규 노선이다.

그동안 양주시는 강남권 직행 노선이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024년 11월과

2025년 9월에 대광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강남권 광역노선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기관 협의를 이어왔다.

신규 노선은 삼성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해 고읍지구와 옥정신도시를 경유한 뒤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통해 신사역, 논현역을 지나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차량 8대가 투입돼 하루 28회 운행하며, 노선 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이용객이 많은 기존 G1300번, G1306번의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프리미엄 키우고, 뽀빠로 글로벌 공략... 전방위 체질개선

롯데엘푸드, 성장축 전환 속도

내수 부진과 원가 부담이 겹치며 수익성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롯데엘푸드가 체질 개선과 성장축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이 서정호 혁신추진단장을 신임 대표로 전격 선임하며 경영 혁신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 브랜드 포트폴리오 재정비·사업 구조 재편·해외 메가 브랜드 육성 등 전방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는 모양새다.

롯데그룹은 26일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서정호 부사장을 롯데엘푸드 대표로 선임했다. 서 대표는 지난 7월 혁신추진단장으로 합류한 뒤 경영 진단, 수익성 개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총괄해온 인물로, 합류 4개월 만에 대표로 선임됐다. 삼성코닝정밀소재·두산·한국엔컴퍼니 등을 거치며 전략·신사업·M&A 등을 두루 경험한 '전략형 경영자'로, 그룹 차원의 긴급 체질 개선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 대표 체제에서 사업 구조 재편과 원가 효율화, 신사업 확장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엘푸드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 감소한 가운데, 단기간 내



美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롯데엘푸드 '웰컴 투 K-스위트 홀리데이' 페스티벌에 참여한 방문객의 모습. /롯데엘푸드

서정호 부사장, 대표로 전격선임 영업익 32%↓ '가시적 반등' 과제

SKU 공장 정리 등 '제조 효율화' 한결식빵 등 베이커리 기반 확장 뽀빠로 '글로벌 메가 브랜드' 선정

'가시적 반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내수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재편·원가 효율화' 기조가 뚜렷하다. 빙과 부문에서 스테디셀러는 유지하되, 고가 라인업 비중을 늘려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

업계는 전면 가격 인상보다 소비자

저항이 적은 프리미엄 신제품을 통한 수익 개선에 무게를 둔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원가 부담을 감당한 제조 효율화도 진행 중이다. 저효율 SKU 정리, 공장 가동률 개선 등 비용 구조 다이어트가 병행되고 있으며, 빙과 중심 매출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로슈가 초콜릿류, 고단백 간식, HMR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 역시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넓히고 있다. 최근 출시한 '식사이론 진국(국밥) 시리즈'는 컵라면형 용기에 블록스프+잡곡밥 구조를 도입해 차별화했다. 1인 가구·직장인·캠핑족 수요를 겨냥한 제품으로,

'간편식 시장 내 신성장 축'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베이커리·B2B 사업 기반도 넓힌다. 최근 '한결식빵', '숨결식빵' 등 신규 베이커리 상표권을 잇달아 출원하면서 B2B 베이커리 채널, PB 상품, 프랜차이즈 납품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초 신라명과에 증평 제빵공장을 매각하며 제조 구조를 슬림화한 것도 생산 효율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베이커리 사업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축에서는 초콜릿·스낵 중심의 신흥국 공략이 강화되고 있다. 올해 뽀빠로 연 매출은 약 2415억 원으로 사상 최대가 예상되며, 특히 수출이 전년 701억 원에서 900억 원 수준으로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K-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통합 마케팅,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기용 등이 해외 MZ층 수요 확대에 기여했다.

롯데는 지난해 폴란드 전략회의에서 뽀빠로를 '글로벌 메가 브랜드 1호'로 선정하고 인도 하리아나 공장에 첫 해외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국내 생산·수출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현지 생산 확대, 국가별 패키징 재정부 등으로 글로벌 사업 수익성 개선도 추진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습떡볶이 습김치덮밥 침착맨 채널 영상 캡처.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습떡볶이·습김치덮밥 온라인 소비자 이벤트

CJ제일제당은 '스트레스를 날리는 습 제품'을 주제로 '습떡볶이'와 '습김치덮밥' 제품을 알리는 온라인 소비자 이벤트를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습떡볶이와 습김치덮밥은 올해 매운 맛으로 화제가 지속되고 있는 '습김치'의 인기로 힘입어 지난 9월 출시된 '습' 제품 시리즈다. 습떡볶이는 습만의 매콤한 소스로 매운 떡볶이를 구현했고, 습김치덮밥은 매운 김치에 참기름을 더한 습김치덮밥소스와 햇반이 묶음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3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돼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

이 제품들은 최근 유튜브 침착맨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소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침착맨 채널에서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릴까?'라는 주제로 진행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수천 명이 동시 시청하며 '매운데 정말 맛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먹기 좋은 매운맛' 등 호평이 쏟아졌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직장인과 학생 관련 영상 2편에 습떡볶이와 습김치덮밥이 각각 소개돼, 조회수 600만회를 돌파했다.

/신원선 기자

삼양식품

삼양1963 팝업 오픈 성수동서 7일간 운영

삼양식품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7일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삼양 1963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양1963' 출시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근본 라면의 귀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프리미엄 라면 바' 콘셉트로 운영된다. 삼양식품은 앞서 성수동에서 진행한 '김이 피어오르는 삼양1963 옥외광고 캠페인'에 이어 팝업스토어를 연달아 선보이며 주요 고객층과의 접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삼양1963 팝업스토어는 라면 조리로 인한 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네이버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예약 후 순차 입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사전 예약 방문객은 팝업스토어 내부에 조성된 시식존에서 삼양1963을 온전한 식사 형태로 경험하게 된다. 이후 시식평을 작성하면 팝업스토어 굿즈인 '삼양1963 전용 텀블러'를 증정 받는 구성이다.

/신원선 기자

쿠팡, 플랫폼 '파페치' 협력 K-뷰티 브랜드 수출길 연다

뷰티 시장의 핵심 美·英 첫 진출 JM솔루션·아리얼 등 中企 지원

쿠팡이 글로벌 명품 마켓플레이스 파페치(Farfetch)와 협력해 국내 중소 뷰티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고 27일 밝혔다. 쿠팡이 직매입한 K-뷰티 제품을 파페치 플랫폼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업은 26일부터 본격 시작됐으며, 첫 진출 지역은 글로벌 뷰티 시장의 핵심인 미국과 영국이다. 쿠팡은 '더후', '오후' 등 대기업 브랜드뿐만 아니라 'JM솔루션', '닥터디퍼먼트', '아리얼', '듀이트리', 'VT코스메틱' 등 중소·중견 기업 브랜드 제품도 함께 선보인다.

쿠팡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브랜드가 겪는 복잡한 수출 절차와 물

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했다. 상품 매입부터 수출입 통관, 해외 배송, 고객 서비스(CS)까지 전 과정을 쿠팡이 파페치와 함께 직접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 브랜드는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파페치 앱 내에는 'K-뷰티' 전용 코너가 신설됐다. 현지 고객이 주문하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포장해 파페치의 글로벌 배송망을 통해 평균 3~4일 내에 전달된다.

쿠팡은 내년까지 참여 브랜드를 100여 개로 늘리고, 진출 지역을 유럽 등 190여 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K-뷰티 중소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홈플러스, PB라면 누적판매 2400만봉

이춘삼 짜장라면 등 출시 3년 성과

홈플러스가 '이춘삼 짜장라면' 등 P B(자체 브랜드) 라면 시리즈 출시 3년을 맞아 누적 판매량 2400만 봉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메가히트 상품인 이춘삼 짜장라면의 건면 신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홈플러스 PB라면 시리즈는 2022년 12월 '이춘삼(이것이 리얼 춘장 39.6%)' 짜장라면을 시작으로 '이해봉(이것이 리얼 해물 찜뽕)' 찜뽕라면, '이진국' 라면 등으로 이어지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첫 번째 시리즈인 이춘삼 짜장라면은 개당 5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춘장 함유량으로 누적 1700만 봉 이상 판매됐다. 후속작인 이해봉 찜뽕라면은 480만 봉, 올해 7월 출시한 이진국 라면도 4개월 만에 150만



홈플러스가 누적 판매량 2400만 봉을 돌파한 이춘삼 짜장라면의 건면 제품을 선보인다. /홈플러스

봉이 팔려나갔다.

이번에 출시하는 '이춘삼 짜장라면 건면'은 튀기지 않은 건면을 사용해 칼로리를 낮추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쫄깃한 식감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두꺼운 건면을 사용했다. 가격은 4개입 1팩에 2990원이다.

/손종욱 기자

GS25, 베트남 하노이서 50호점 문열어

현지점포 400호점 달성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베트남 하노이 50호점을 오픈하며 현지 점포 400호점 달성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GS25는 2018년 호찌민 진출을 시작으로 남부 지역에서 35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진출한 하노이에서도 8개월 만에 50호점을 열며 베트남 전역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성장 비결로는 K-푸드 중심의 상품

경쟁력과 상권 특성에 맞춘 특화 매장 운영이 꼽힌다. 특히 떡볶이, 김밥 등 즉석조리 식품을 판매하고 넓은 취식 공간을 갖춘 K-푸드 특화 매장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K-뷰티, 와인25, 카페25 등 현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10가지 특화 매장을 운영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최근에는 호찌민에서 GS25 베트남 무직 페스티벌 2025를 개최해 1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기도 했다.

/손종욱 기자

국순당 '생백세주' 인기... 추가생산 돌입

이달 생산 내달부터 2차 판매

국순당은 신제품 살균하지 않은 백세주인 '생백세주'가 출시 한달 만에 회사 보유분이 완판되고, 일부 판매처도 품절되는 등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국순당 측은 11월부터 추가 생산에 돌입해 12월부터 2차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국순당 생백세주는 지난 9월 출시된

이후 제품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일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는 완판돼 현재 12월 순차 출고 예정으로 주문받고 있다. 일부 판매채널에서 자체 물량 확보분 판매 중이다.

국순당 '생백세주'의 인기 이유는 백세주 본연의 맛을 간직하면서도 '생주' 특유의 풍성하고 산뜻한 과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맛으로 분석된다.

/신원선 기자

“아프리카서도 ‘K-뷰티’ 만나요”… 업계, 현지 유통망 확장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남아공 4대 도시서 10개 제품 선보
스킨1004, ARC 매장 이미 안착
센텔라, 톤 브라이트닝 제품 판매

아프리카 시장에서 K뷰티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뷰티 브랜드들은 현지에서 유통망을 구축하며 글로벌 소비자의 K뷰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7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크리에이트 뉴 뷰티 브랜드 ‘이니스프리’의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지역을 공략한다.

이니스프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4대 주요 도시인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프리토리아, 콰줄루나탈 등에서 선보여지게 됐다. 남아공 대표 뷰티 유통사 ARC 11개점에서 브랜드 대표 제품 그린티 히알루론산 수분 세럼, 화산송이 모공 듀얼 마스크팩, 비타민C 캡슐 세럼 등을 포함해 총 10개 제품을 출시한다.

오는 2026년 1월에는 남아공 대형 유통망 포스키니 내 6개점에도 추가 입점



이니스프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4개 도시의 ARC 매장에 공식 입점했다. /아모레퍼시픽

한다.

아모레퍼시픽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내 핵심 거점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입점을 계기로 향후 아프리카 시장 전반에서 이니스프리를 앞세워 자연주의 브랜드 입지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서 미국, 유럽 등에서 이니스프리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해 왔다. 미국, 유럽 등에서 판매 호조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프랑스 멀

티브랜드숍 오 마이 크림에 입점하며 소비자 접점을 확보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뷰티 편집숍 스페이스엔케이에 신규 입점한 데 이어 현지 주요 매장을 중심으로 협업을 확장했다.

일본에서는 오프라인 로드숍은 폐점을 완료했고 멀티브랜드숍과 이커머스 채널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이니스프리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한 매출은 1550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97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누

적 매출은 11% 줄었고, 누적 영업이익은 126% 늘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올해 국내외 오프라인 로드숍 축소, 면세 매출 감소 등으로 전체 매출은 하락했으나 수출국 다변화, 각국 유통 채널 재정비 등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남아공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K뷰티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다양한 뷰티 유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뷰티 신생 주자인 스킨1004도 아프리카 지역을 핵심 국가로 꼽으며 K뷰티 신흥 수출국을 개척하고 있다.

스킨1004는 2023년부터 아프리카 지역에서 브랜드 입지를 넓혀 왔다. 이미 올해 4월 남아공 ARC 매장에도 안착했다. 입점 품목은 현지 기후 특성과 소비자 취향을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높은 기온으로 인한 피부 자극을 진정시켜주는 ‘센텔라’ 제품군과 K뷰티를 상징하는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톤 브라이트닝’ 제품군으로 구성된 10여 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스킨1004는 올해 상반기 남아공에서

전년 대비 608% 증가한 3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ARC 추가 입점을 늘리고 있으며 남아공 최대 유통망 올위스 내 15개 매장 입점도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대표 드럭스토어인 ‘메드플러스’에 입점해 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145개 매장 중 주요 지점 40곳에 초도 입점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고온다습한 환경에 적합한 피부관리법을 제시하는 전략을 펼친다. 특히 모공 고민까지 관리할 수 있는 ‘포어마이징’ 제품군도 내놓았다.

스킨1004 관계자는 “K뷰티 제품 수요가 빠르게 확산하는 신흥 국가에서 브랜드 접근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이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규 지역별 유통 판로를 다각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아프리카 뷰티 및 퍼스널케어 시장은 지난 2024년 연평균 8.5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오는 2028년까지 약 81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집계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옴리클로’로 브라질 시장 공략

150mg 용량 선보… 내년 75mg 발매
의료진 대상 마케팅 활동 진행도

셀트리온이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맵)’를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인 브라질에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옴리클로는 오말리주맵 바이오시밀러 중 브라질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퍼스트 무버’ 제품이다. 이번에 150mg 용량이 먼저 출시된 가운데 오는 2026년 초에는 75mg 제품도 추가로 발매될 계획이다.

셀트리온 브라질법인은 옴리클로 출시 전부터 현지 의약품 구매 담당자와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제품 경쟁력 및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적극 알리며 인지도 제고 활동을 펼쳤다.

의료진 대상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옴리클로’. /셀트리온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브라질 알레르기·면역학회(ASBAI)에서 옴리클로의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 편의성을 설명하며 현지 의료진과 적극 교류했다.

브라질에서는 셀트리온 주요 제품들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신규 출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올해 2분기 기준 혈액암 치료제인 ‘트룩시마(성분

명: 리룩시맵)’는 브라질 사립 시장에서 약 80%(현지 시장 데이터)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렘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맵)’ 역시 동일 시장 영역에서 60%의 점유율로 처방 성과를 거뒀다.

셀트리온은 기존 제품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옴리클로를 비롯한 후속 출시 제품들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강경두 중남미 지역 담당장은 “옴리클로는 브라질에서 퍼스트 무버로 출시된 오말리주맵 바이오시밀러로서 시장 조기 진출의 이점을 앞세워 처방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브라질을 기점으로 2026년부터는 중남미 지역 내 옴리클로 판매 국가를 본격 확대해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젤토팜정’ 선보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5·10mg 발매
가장 경제적인 약가 ‘8307원’ 책정

대웅제약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젤토팜정’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젤토팜정은 화이자 젤잔즈정(성분명: 토파시티닙)의 퍼스트 제네릭으로, JAK 억제제 계열 약물이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보해 동등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갖췄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5·10mg g가 동시 발매됐고 류마티스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등 모든 적응증을 확보했다.

젤토팜정 10mg 약가는 현재까지 등재된 젤잔즈정 제네릭 중 가장 경제적인 약가인 8307원으로 책정돼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지속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 등 고용량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JAK 억제제 계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는 한 달 약값만 최소 수십만 원대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지속 복용이 필요한 질환 특성상 비용 부담이 크다.

젤토팜정은 복약 편의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부형제 최적화를 통

해 정제 크기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최대 15% 줄여 목 넘김을 돕는다. 5·10mg 모두 30정 병포장으로 30일, 60일 단위로 처방·조제하기 편리하다.

대웅제약 박형철 전문의약품(ETC) 마케팅본부장은 “젤토팜정은 고가 치료제 위주의 JAK 억제제 시장에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젤토팜정이 의약품 장기 복용이 필요한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자일리톨 씹어요”

롯데웰푸드, ‘스마트해빗’ 캠페인 전개

롯데웰푸드가 국민검 ‘롯데자일리톨’의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스마트해빗(SMART HABIT)’을 확장 전개한다. 양치질처럼 매일 꾸준히 자일리톨 껌을 씹는 습관을 가족 단위 치아 관리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롯데자일리톨은 100% 핀란드산 자일리톨을 사용해 식약처 ‘기능성표시식품’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 자일리톨껌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브랜드다. 2000년 출시 이후 품질 개선을 거듭하며 연간 약 750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누적 매출은 약 2조4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민트·쿨링향을 적용해 상쾌함을 높였고, 자일리톨 자체가 침샘을 자극해 구강 건조 개선과 세균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해빗 캠페인은 핀란드식 치아 건강 습관을 알리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롯데웰푸드는 한국·일본·베트남·핀



자일리톨 ‘우리 가족 치아 습관’ 캠페인 광고. /롯데웰푸드

란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글로벌 스쿨’ 등을 운영해왔다.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치과위생사와 함께 어린이 대상 치아 교육, 식후 자일리톨 섭취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조아제약-대한항공 점보스, 스폰서십 체결

홍구장 인천계양체육관서 LED 광고
관중 대상 제품 증정, SNS 행사도

조아제약이 대한항공 점보스 배구단과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와 소비자 소통 강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아제약은 2025-2026 V리그 시즌 동안 대한항공 점보스의 홈구장인 인천 계양체육관 코트와 응원석 LED 광고판을 활용해 기업 홍보를 진행한다.

홈경기 관중을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화이트샤이닝’ 등 자사 주요 제품을 증정하고 조아제약 공식 SNS 계정에서 소비자 참여형 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글루타치온 화이트샤이닝은 특허받은 용기 조아 세피지 앰플을 적용한 신소재이너뷰티 제품으로 L-글루타치온 함유 효모추출물, 화이트 토마토, 300달톤의 지분자 콜라겐, 엘라스틴 펩타이드 등을 처방했다. /이청하 기자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한화비전, ‘월간 한 모금’ 동참...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한화그룹 기계 부문까지 참여 확장
밀알복지재단 ‘맞손’... 2억 기부
안면장애, 화상흉터 등도 지원 대상

한화비전은 한화 유동·서비스 부문 통합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월간 한 모금’에 동참한다고 27일 밝혔다. 치료가 시급한 장애 아동 가정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화갤러리아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지난해 9월 시작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달부터 한화비전과 아이휴도 참여하며 참여 범위가 한화그룹 기계 부문까지 확장됐다.



지난 26일 열린 ‘월간 한 모금’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신광섭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테이트부문 경영전략실장, 전형훈 한화갤러리아 경영기획실장, 전철민 한화비전 경영지원실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주현식 아이휴 경영지원부부장, 양병성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리조트부문 경영지원실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비전

한화 기계·유동·서비스 부문 4개사는 26일 서울 더 플라자에서 밀알복지재단

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저소득 장애 아동과 희귀 질환 아동의 수술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에 사용된다. 내년부터는 안면장애, 화상 흉터, 신경섬유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화비전 관계자는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 아동 가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동참하게 됐다”면서 “월간 한 모금이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호타이어, KSI 타이어부문 1위

금호타이어는 지난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타이어 부문 1위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제조 부문 우수 보고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미래성장사업부문 유정선 상무(왼쪽)가 선정을 기념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롯데마트,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표창

롯데마트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체 부문 최고 훈격인 대통령표창 수상은 글로벌 진출 지원, 중소기업 협력, 농어촌 상생 등 롯데마트의 ESG 기반 상생 경영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롯데마트



맥도날드, ‘푸르메소셜팜’ 일손돕기 봉사

한국맥도날드는 전날 협력사 임직원들과 함께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첨단 스마트농장 ‘푸르메소셜팜’을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국맥도날드를 비롯해 주요 협력사들로 구성된 협의체 멤버인 오투기, 매일유업 등 7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맥도날드



보험개발원,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보험개발원은 지난 26일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성금 모금으로 마련한 연탄 2만장을 기부하고 영등포 쪽방촌에서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창연 보험개발원장(오른쪽)과 임직원들은 쪽방촌 주민의 가정에는 연탄을, 후원스토어인 ‘온기창고’에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 /보험개발원



NH농협손보, KCPI 2년 연속 최고등급

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해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인증 수여식에서 송준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6일 경기 광명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SK엔무브 여자 핸드볼 구단인 SK슈가글라이더즈, 한국체육대학교와 함께 ‘발달장애아동 핸드볼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 발달장애아동 핸드볼 체육대회

SK슈가글라이더즈, 한국체대 참여

SK이노베이션이 올 한해 ‘발달장애 핸드볼 교실’을 수료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핸드볼 체육대회를 열었다.

SK이노베이션은 26일 경기 광명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SK엔무브 여자핸드볼 구단인 SK슈가글라이더즈, 한국체육대학교와 공동으로 올해 발달장애 핸드볼 교실을 수료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7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참여한 ‘발달장애아동 핸드볼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SK슈가글라이더즈, 한국체육대학교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신체발달 및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주는 핸드볼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 서울 및 대전 소재 특수학교 4곳에서 핸드볼 교실을 총 104회 진행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육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핸드볼 교실에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3360여명과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 31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원관희 기자

현대글로비스, 글로벌 LNG 해상운송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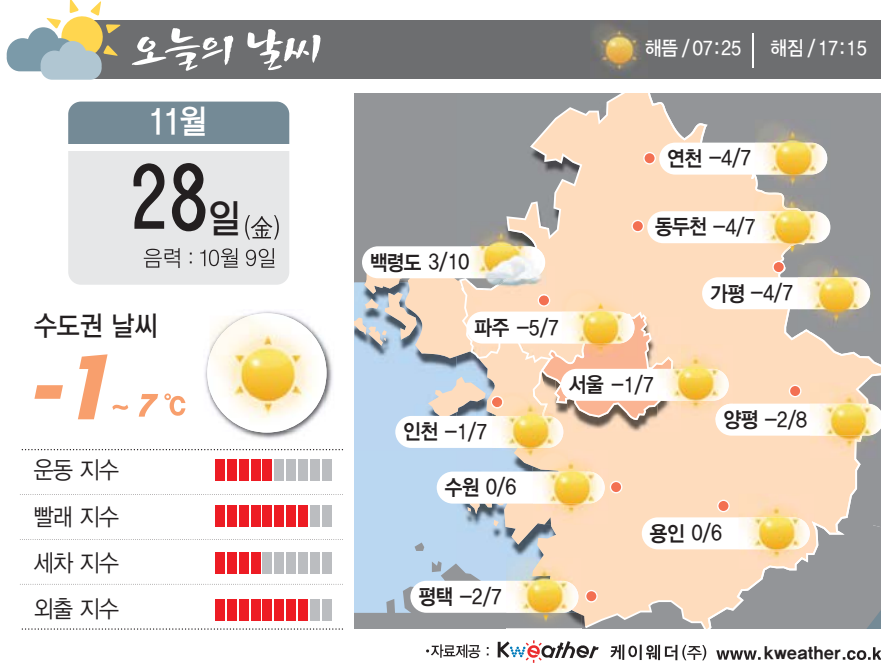
15년간 약 5800억 규모 매출 확보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종합상사 기업과 액화천연가스(LNG)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최대 15년간 약 5800억원 규모의 매출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글로비스는 계약 수행을 위해 17

만4000m³급 LNG 운반선을 새로 건조해 운송에 투입한다.

이 LNG 운반선은 2029년부터 미국 걸프 연안 LNG를 전 세계 주요 지역으로 수송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LNG 해상 운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 145억 상당 물품기부

전국 사회복지시설 3000여곳에 전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2025년아리따운 물품나눔’을 통해 145억원 상당의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아리따운 물품나눔 행사에는 헤라, 라네즈, 미장센, 이니스프리, 아모스 등 20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이번 기부 물품은 전국 약 300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며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은

물론 이주배경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2005년부터 20년째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아리따운 물품나눔’ 활동을 실천해 왔다. 2009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규모와 범위를 확대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기부 규모는 약 1133억원이며, 전국 4만600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한국엔컴퍼니그룹, 위급상황 대처교육 실시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CPR 교육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지난 26일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케이씨피알교육센터의 전문 응급처치 강사를 초빙해 회당 2시간 과정으로 총 4회 진행했다. 각 부서에서 최소 1명 이상 필수 참여하도록 했으며,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CPR)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응급처치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지난 26일 판교 본사에서 임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

시 주의사항 등 이론을 학습한 뒤, 마네킨과 AED 장비를 이용해 성인·영아 등 연령대별 CPR 실습을 진행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LG** ◇부사장 승진 △장건 △장승세 △정정욱 ◇전무 승진 △윤창병 △이승기 ◇이동 △박충현(현 LG전자)

◆**LG전자** ◇신임 CEO △류재철 사장 ◇사장 승진 △은석현 VS사업본부장 △이재성 ES사업본부장 ◇부사장 승진 △김진경 SoC센터장 △조병하 webOS플랫폼사업센터장 ◇전무 승진 △김창민 품질경영센터장 △김철 부품솔루션사업부장 △김태완 멕시코리생산법인장 △양희구 생산혁신센터장 △이성진 한국구독영업담당 △이희성 노경담당 △정순호 D2C해외영업그룹장 △정욱준 디자인경영센터장 △정재용 고객차지혁신부부장 ◇상무 승진 △권민호 ES엔지니어링담당 △김경석 키친솔루션연구소장 △김광만 ES제어연구담당 △김승만 VS CX담당 △김윤수 HS품질경영담당 △김준우 써비동생산법인장 △김현 한국영업경영관리담당 △김홍덕 Connectivity개발리더 △노승완 TV

아시아영업담당 △노윤호 디스플레이제품개발담당 △박영진 HS SCM담당 △박진규 ES생산담당 △양희철 한국D2C영업담당 △이재모 HS기술전략담당 △정병우 광학연구소장 △정수봉 한국건설영업담당 △정영관 미국HS영업담당 △정용찬 인도LG전자 오퍼레이션그룹장 겸 노이 다생산담당 △조성현 인도SW연구소장 △황영민 인도LG전자 인도HS영업담당 △황상연 워싱턴오피스소장

◆**LG에너지솔루션** ◇전무 승진 △김형식 ESS전지사업부장 ◇상무 신규선임 △김낙진 소형 상품기획/전략담당 △김현태 ESS 상품기획/전략담당 △배재현 ESS 북미OperationPack/LINK생산지원담당 △손권남 미래기술 차세대Cell개발담당 △이승훈 인프라그룹장 △허성민 자동차 마케팅 마케팅4담당

◆**LG생활건강** ◇신규 임원 선임 △HDB 영업총괄 박일상 △정도경영담당 박정철

20개월 이상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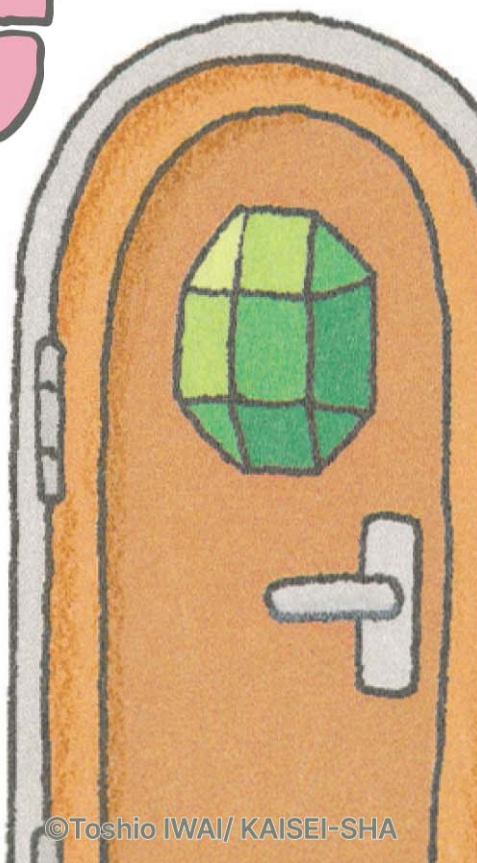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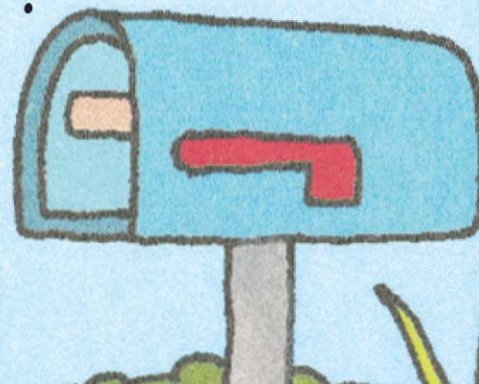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20만 관객 증명!
기발한 상상력의 이머시브 뮤지컬

뮤지컬

100

총짜리 집

우와~ 여기엔
누가 살고 있을까?
올라가 보자!



©Toshio IWAI/ KAISEI-SHA

2026.01.09(금) ~ 03.02(월)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 대극장

중용지도 없는 금감원



이 정 혁
西村브리핑

“롯데손보 경영진들은 그냥 양복 입은 야치들이예요.”

900억원 규모의 후손위채 조기 상환을 추진하다가 금융감독원의 반대에 밀린 롯데손해보험이 마지못해 상환 보류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 5월 중순, 금감원 보험부문 고위 간부는 일부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고위 간부는 지난해 말 무지 해지 보험 해지율 예외 모형 선택도 그렇고 이번에도 금감원 지침에 어긋장을 놓았던 롯데손보를 방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한번 미운털이 박히면 뽕 짓을 해도 미워 보인다’는 옛말을 떠올리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던 중이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2차례의 갈등 사태 이후 그동안 강경파였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6월 초, 보험 담당 김 모 부원장보가 9월에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강대강’ 대치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무

엇보다도 한국금융지주가 올해 8월부터 롯데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관례상 금융 당국의 과격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 전망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첫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예방적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누가 봐도 ‘군기 잡기식’ 징벌적 제재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시각이다.

금융 감독의 본래 취지는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경영개선 가이드를 제시하며 ▲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는 이 기준과 부합되는 점이 없다는 점에서 금감원 제재의 가장 나쁜 섀넨로 남게 됐다.

우선 금융당국이 그동안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을 설명할 때 자주 내세운 표현인 위험을 조기에 간파해 시장 불안을 잠재운다는 ‘사전 예방적 조치’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 롯데손보의 올해 3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99%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130%)을 웃돌고, 올해 1분기(119.9%), 2분기(129.5%)와 비교해도 꾸준한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순이익 흐름을 보면 2024년 272억원에서 2025년 3분기까지 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정량 지표상으로는 위험 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이런 정상 지표는 무시하고 대주주가 증자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들어 비계량평가 항목을 이유로 ‘엘로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경영 개선 가이드나 산업 전체의 안정성 면에서 볼 때도 인수합병 논의가 진행 중인 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통상 매물에 대한 감독 조치는 가급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기류였는데 이번처럼 칼을 빼들어 매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유학의 대표적인 경전인 중용(中庸)에서는 “덜 익은 알곡을 다 걸러내면 먹을 것이 남지 않고, 미운 사람을 다 걸러내면 쓸 사람이 남지 않고, 매를 많이 휘두르다 보면 상대방의 아픔에 둔감해진다”라며 ‘중용지도(中庸支道)’를 언급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 금감원 직원들이 팔히 가슴에 새겨야 할 감독 자세가 아닐까 한다.

/ljin@metroseoul.co.kr

플랫폼의 실수가 소비자 탓?



기 지 수 첩
나 유 리
(금융부)

월세, 식비, 통신비 등 숨만 쉬어도 드는 비용이 있다. 비용은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급격히 늘어난다. 교통비, 회비, 사람마다 의류비까지 포함되니 말이다.

최근 숨의 무게가 무거워 진다는 것을 느낀다. 이유는 구독료와 수수료. 저렴한 가격에 시작했던 쿠팡, 유튜브, 넷플릭스는 이제는 만원에 구독할 수 없다.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모든 플랫폼에 이름없이 붙는 수수료는 우리부담으로 이어진 지 오래다.

최근 여행을 준비하며 항공료를 결제하다 대행료(수수료)를 두번 결제했다. 아니,

결제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항공료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지 플랫폼 수수료가 2만원일지 몰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항공료를 결제할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료 결제 과정만 거쳐도 내야 했던 것. 문자가 온 곳으로 전화를 했지만 상담사 연결은 쉽지 않았고, 당황한 손길은 웹의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일대일 문의를 통해 수수료를 환불받았지만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면, 문자를 스미싱으로 오해했더라면, 웹의 문의란에 글을 남길 생각을 못했더라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플랫폼은 편리함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시간을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전에는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면 이제는 앱 하

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은 플랫폼의 실수조차도 소비자의 눈으로 찾아야 한다. 알림 한 줄 없이 붙는 수수료, 결제 단계에 숨어 있는 옵션, 환불이나 취소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추가 비용들까지 결국 사용자가 직접 ‘검증’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구조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다. 비용과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투명한 편리함’이다.

플랫폼은 편리함의 이름으로 가격이 불분명해지고, 책임의 무게가 소비자에게 이동되지 않도록, 플랫폼은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플랫폼의 실수를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탓이 되지 않기를. 플랫폼의 실수로 인한 금액으로 숨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yu115@

오늘의 운세 11월 28일 (음 10월 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돼지띠 친구의 도움으로 거래가 무사히 성립. 48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60년생 능력 부족으로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 아프다. 72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84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



37년생 거울은 혼자서는 웃지도 울지도 않으니 지금이라도 노후대비. 49년생 선배의 도움으로 일을 마무리. 61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한다. 73년생 술자리에서 실수하게 된다. 85년생 인생은 여차며 혼자 가는 여행이다.



38년생 양다리를 접으니 왠지 마음이 편하다. 50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하자. 62년생 손톱에 뾰드레가 가득히 손조로운 하루가 되겠다. 74년생 좋은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긴다. 86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로 원망을 듣는다.



39년생 집으로 가는 길이 불편. 51년생 산들바람이 부니 일이 잘 풀린다. 63년생 제 살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는 것을 알도록. 75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87년생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행복이 눈앞.



40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는 신어야 한다. 52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64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르다. 76년생 기죽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88년생 걱정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



41년생 자식이 월급을 나눠주니 고맙다. 53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65년생 노부모님 말씀에 어불성설(語不誠說)로 우기지 마라. 77년생 이끼가 끼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터. 89년생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42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54년생 전화파싱을 조심하자. 66년생 부동산 관련 중요한 연락이 오니 우편물을 꼭 확인. 78년생 민은 만큼 좋은 결과가 온다. 90년생 떠돌다가 직장에서 미운털 박히게 되니 조용히 하는 것이.



43년생 위기를 대비하여 이제라도 비상금을 모으자. 55년생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개척. 67년생 친구와 대립이 생기니 조심. 79년생 가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니 귀하게 여겨라. 91년생 타인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접어야 편하다.



44년생 아랫사람과 의견충돌을 주의. 56년생 예습에 무용지물(無用之物)인 것은 거의 없으니 기해해보라. 68년생 거짓말 빼고 사랑도 배워가며 하는 것. 80년생 직장에서 과민한 반응을 자제하자. 92년생 성과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네.



45년생 주변 의견을 따르는 것이 조직에 이롭다. 57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견제를 받는다. 69년생 결모양만 화려한 것을 동경. 81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려버려 두는 것이. 93년생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로 늦지 않았으니 먼저 할 일을 찾아라.



46년생 남편 말에 연중유골(中有骨)을 상해하도록. 58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70년생 먹는 것 갖고 싸우나 돈 갖고 싸우나 매한가지 아니겠는가. 82년생 열심히 일하니 세상이 꽃동산. 94년생 꿈이 있어 슬프지 않다.



47년생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이 고맙다. 59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덮는 것이 순리이다. 71년생 길에도 양보가 있듯이 운전 때 차량 양보. 83년생 삼재 기도하도록. 95년생 자동차 바꾸는 것을 늦추어서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보도록.

김상회의四季

은혜 값는 가치와 젠슨 황



얼마 전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이 화제를 주고 있다. 젠슨 황이 어려웠던 시절, 자신에게 숭통 트이는 기회를 준 한국에 대한 감사가 알려지면서 은혜 값는 가치의 설화까지 소환되고 있다. 젠슨 황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 고 이관희 회장과 의 일화를 스스로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젊은 젠슨 황에게 고 이회장은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무엇보다 당시에 이름 없던 소규모 벤처 창업자였던 자신에게 이메일도 아닌 손편지를 써서 보낸 진심에 감동하였다고 소회를 얘기했다.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한 이관희 회장의 탁견으로 한국에 오게 됐으며, 현재야 내로라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당시에 그는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팔기 위해 직접 용산전자상가를 여러 번 찾아왔었다.

한국의 PC게임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엔비디아가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엔비디아 성장의 역사가 한국의 PC방에서 시작됐다면 우리도 모던 성장의 역사를 얘기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다. 은혜를 아는 것은 바른 성품을 지닌 자의 덕목이다. 그리고 이는 선순환을 낳는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선두인 삼성과 협업하기로 한 엔비디아가 그 예이다. 젠슨 황은 오늘날의 자신과 엔비디아가 있기까지 도움을 받은 사람이든 기업이든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니 나름대로 보은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만 출생인 그는 유교적 토대가 강한 문화권 출신으로서 아무래도 한국인들과는 정서적 환경이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올챙이 때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현실인지라 따듯함을 느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0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0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학기를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5		4		3	9			
2		6	8					7
							3	
				8	4			3
		2				4		
3			2	9				
	9							
4					1	5		8
			7	4		3		2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6	8	8	7	2	9	9	1
8	2	9	1	9	6	8	2	7
7	9	1	8	2	9	2	6	8
9	9	8	2	6	2	1	7	8
6	1	7	9	9	8	2	8	2
8	2	2	7	8	1	6	9	9
9	8	9	2	2	7	8	1	6
2	7	6	9	1	8	9	8	2
1	8	2	6	8	9	7	2	9

1	6	8	8	7	2	9	2	9
7	2	9	6	9	8	1	8	2
2	8	9	2	9	1	8	6	7
2	8	6	2	1	9	9	7	8
8	7	2	8	9	6	6	1	9
9	9	1	7	8	6	2	8	2
6	1	8	9	2	2	7	9	8
9	2	2	1	8	7	8	9	6
8	9	7	9	6	8	2	2	1

천재 와인메이커의 부르고뉴 변주곡... 도멘 미셸 르부르정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04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이끌었다.” 부르고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세계적인 명산지인데 새삼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차세대 젊은 와인메이커들의 활약이 유독 두드러지면서다. 부르고뉴 특유의 테루아에 대한 집착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색다른 개성이 더해졌다. 포도재배든 양조든 실험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차이에도 집중해 섬세하고 정교하다. 부르고뉴의 기존 유명세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셈. 27세 와인메이커가 이끄는 부르고뉴 와이너리 도멘 미셸 르부르정(Domaine Michel Rebougeon)이다.

도멘 미셸 르부르정의 와인메이커 윌리엄 화이트헤드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본 지역이 정교하고 섬세하다면 포마르에서는 힘과 깊이가 있고, 불네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라며 “포도밭 각 구획마다 따로 양조해 테루아 특유의 개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



1 도멘 미셸 르부르정의 와인메이커 윌리엄 화이트헤드. 2 도멘 미셸 르부르정 부르고뉴 꼬뜨 도르 루즈 2022, 도멘 미셸 르부르정 본 프리미에 크뤼 레 쇼아슈 2022, 도멘 미셸 르부르정 뽀마르 트와 떼루아 2018, 도멘 미셸 르부르정 뽀마르 레 노종 2020.



/안상미 기자

도록 와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도멘이 포마르 지역에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514년부터다. 윌리엄은 5대손이다. 도멘 자체로는 역사가 500년이 넘었지만 부르고뉴의 많은 농가들이 그랬듯이 직접 와인 양조까지 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윌리엄의 외할아버지부터다. 부모님이 1996년부터 와이너리 운영을 도맡았고, 윌리엄이 2018년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합류했다. 21세라는 이례적으로 이른 나이에 와인 양조를 시작했지만 우아하고 섬세한 와인을 선보이며 도멘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제스퍼 모리

스로부터 “노련한 장인의 와인 같은 완성도”라는 극찬을 받는가 하면 부르고뉴 와인전문지가 선정한 톱100 와이너리에도 올랐다.

도멘 미셸 르부르정의 테이스팅은 윌리엄이 합류한 2018 빈티지부터 출발해 보자. 첫 해라고는 하지만 그간 나고 자라며 봐온만큼 테루아에 대한 이해는 충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조방식에 일부 변화를 줬다. 손수확한 포도를 한번 더 선별했고, 줄기는 완전히 제거했다. 침용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진행했다. 한디로 정리하면 기존 양조에 섬세함을 더한 셈이다.

하필 첫 해에 기후변화가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더웠다. 윌리엄은 수확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도멘 미셸 르부르정 뽀마르 트와 떼루아 2018’는 포마르의 균형감을 담은 와인이다. 프랑스로 트와(Trois)는 숫자 3이다. 라 루아 우, 레 푸아소, 라 바체 등 3개의 테루아를 담았다. 특히 라 바체는 도멘 미셸 르부르정의 최상급 포도밭 중 한 곳이다. 꽃밭인듯 꽃의 향과 흙의 향이 어우러지며, 철분같은 미네랄 느낌도 인상적이다. 더운 해였지만 타닌과 산도를 균형있게 잡아내 숙성잠재력이 뛰어나다. 지금 마시기도

좋지만 10년 추가 숙성도 충분하다.

‘도멘 미셸 르부르정 뽀마르 레 노종 2020’은 싱글빈야드 와인이다. 노종 내에 0.3ha 규모의 포도밭에 1942년에 식재된 포도로 만들었다. 올드바인이라 집중도가 좋지만 소출량이 워낙 적다보니 생산량이 900병에 그쳤다. 베리류 아로마와 함께 향신료향이 층층이 복합적이다. 2020년 역시 더웠지만 예년보다 수확시기를 확 당기면서 산도를 잘 잡았다.

2022년부터는 포도관리에 있어 더 변화를 줬다. 캐노피를 기존 1.2미터 안팎에서 2.2미터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기후변화가 더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인 상황에서 포도를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고, 포도의 집중도도 높아졌다.

‘도멘 미셸 르부르정 본 프리미에 크뤼 레 쇼아슈 2022’는 포마르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레 쇼아슈 포도밭에 1959년 심어 70년 가까이 된 올드바인으로 만들었다. 규모는 0.25ha에 불과해 작황이 좋을 때도 6개 배럴 정도만 가능하다. 농축된 과실로 포마르 특유의 힘이 느껴지지만 잘 정제된 타닌과 생동감 있는 산도로 우아하고 부드럽다. 도멘 미셸 르부르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보여주는 와인이기도 하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카톡 이모티콘 14주년... 무료 이모티콘 등 이벤트 ‘풍성’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출시 14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4년간 누적 출시된 개별 이모티콘 수는 85만 개, 누적 발신량은 3000억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올해에도 다양한 창작자들과 함께 새로운 IP 기반의 이모티콘을 선보이는 한편 이용자들이 더 많은 이모티콘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지난 6월부터 선보인 정기 무료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를 통해 제공된 이모티콘은 153종, 누적 다운로드 수는 6800만 건을 넘어 이용자들의 대화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

스’는 여러 차례 체험 이벤트를 선보이며 누적 2,000만 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출시 14주년을 맞아 생일 파티 콘셉트의 이벤트 페이지를 열고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올해 인기가 높았던 이모티콘 작가들이 직접 그린, 각 캐릭터의 개성이 드러나는 생일 축하 축전 이미지를 공개한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생일 케이크 굽기 게임’도 마련됐다. 게임 결과 이미지를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1만 명에게 이모티콘 플러스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롯데시네마, 위키드·주토피아2 ‘테마 굿즈’ 선봬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위키드: 포 굿’과 ‘주토피아 2’ 테마의 굿즈를 선보였다.

롯데시네마는 올해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위키드: 포 굿’과 ‘주토피아 2’ 개봉을 기념해 감각적인 자체 제작 굿즈를 선보였다.

먼저, ‘위키드: 포 굿’ 개봉을 맞아 ‘위키드 인형 키링’을 출시했다. 초록빛 마녀 ‘엘파바’와 금발의 화려한 마녀 ‘글린다’, 겁쟁이 ‘아기 사자’를 귀엽게 표현한 인형 키링과 함께 ‘위키드: 포 굿’

에 등장하는 허수아비, 마법사 등 다양한 캐릭터가 그려진 스티커도 증정한다.

26일 개봉한 ‘주토피아 2’의 테마 굿즈 가운데 ‘어드벤처 캘린더’는 개봉의 기다림과 설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굿즈로, 상자를 열면 ‘주디’와 ‘닉’을 비롯한 다양한 캐릭터 디자인의 선물이 담겨있다. ‘캔 키링 컵’과 ‘인형 파우치 키링’도 선보인다. 각각 ‘주디’와 ‘닉’ 캐릭터를 디자인에 활용하여 두 버전으로 구성된 이번 굿즈는 각 캐릭터의 개성과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았다.

한일 생활문화 교류... 50년 연구의 집대성

한국 민속학계의 대표적 학자인 김광연(金光彦) 교수가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일본에 건너간 우리 생활문화’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의 생활문화에 담긴 역사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의 풍부한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된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저자는 일본 생활문화의 뿌리를 파헤쳐 역사와 문헌에 기반한 객관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하며, 두 나라의 문화적 관계를 새롭게 조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생활문화가 서로 어떻게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다룬다. 특히 일본 전통문화의 많은 요소가 사실 한반도에서 유래했음을 고고학적 유물, 고문서, 민속자료, DNA 연구를 포함한 다방면의 근거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해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문헌 자료를 분석해 관련 기록을 발췌하고, 발굴된 유물의 사진과 고대 생활도구의 삽화를 추가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 등 시각적인 자료 또한 충실히 담았다.

책에서는 한일 양국 문화의 깊은 연관성을 총 4부로 나눠 소개한다.

1부에서는 한국인의 일본 이주와 함께 이들이 전파한 가족을 중심으로 문화의 흐름을 성찰한다. 소, 개, 닭과 같은 가족이 일본으로 넘어가 정착하게 된 과정을 유전학적 연구와 유물 자료를 통해



일본에 건너간 우리 생활문화

김광연 지음/기파랑

생생히 조명했다.

2부에서는 초밥, 국수, 술과 같은 일본 전통음식의 기원이 한국에 있음을 조리 도구, 조리 방법, 식기와 같은 세부 항목까지 아울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3부는 한국과 일본의 놀이문화를 다룬다. 윷놀이, 바둑, 씨름과 같은 경쟁 놀이와 줄다리기, 사자놀이 같은 집단 놀이를 비교하며, 두 지역의 민속적 유사성과 그 전파 과정을 연구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농업과 밀접한 생활도구의 전파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에서 사용된 농기구와 저장·가공 기술이 일본으로 전파된 과정을 추적하며, 단순한 도구 이상의 생활 방식과 사고 체계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572쪽, 4만원.



▲쌀 1포대 훔쳤다가 부부 체포...일본, 쌀값 역대 최고치

▲美백악관 앞 총격, 군인 2명 중태...트럼프 “아프간 입국자 재조사”

/사진 뉴스

▲10월 中 공업기업 이익 119조원·5.5%↓...“3개월 만에 감소”

▲트럼프 온두라스 대선서 우파 후보 지지...“공산주의자와 싸워야”

▲佛 마크롱, 다음달 3~5일 中 방문...시 주석과 회담

▲日정부, 외국인 세금·보험 체납 댄 재류 갱신 제한 추진



롯데월드푸드
브랜드 재정비 등
체질개선 속도
나



Life

K-뷰티업계
아프리카까지 진출
현지 유통망 확장
L2



편의점에 패션·뷰티, 굿즈까지... “쇼핑 넘어 경험 받으세요”

현장르포

이마트24 ‘트렌드랩 성수점’

“익스 큐즈 미”, “지나갈게요” 글로벌 관광지가 된 성수담게 매장 내에선 여러 외국인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4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보이는 이 곳은 이마트24가 야심 차게 선보인 첫 플래그십 스토어 ‘트렌드랩 성수점’이다. 입구 바깥쪽엔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앉아서 휴식 및 휴대폰 충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마트24가 선보이는 트렌드랩 성수점은 단순한 물건 판매를 넘어 ‘경험’을 파는 공간으로의 진화를 선언한 상징적인 장소다. 젠지(Generations Z·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 세대와 트렌드에 민감한 2030세대가 몰리는 성수동 한복판에 깃발을 꽂고, ‘1030 고객을 가장 잘 아는 편의점’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매장 안내를 맡은 이마트24 관계자는 “편의점이 단순히 급할 때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했다”며 “새 슬로건 ‘올 데이 하이라이트(All Day Highlight)’처럼 고객의 일상 속 모든 순간을 빛나게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관광지 성수에 플래그십 스토어 열어
트렌드에 민감한 젠지세대·2030 타깃으로
매일 새로운 트렌드 발견하는 플랫폼 선보

◆편의점에 틴트가? 3개월마다 바뀌는 ‘브랜드 팝업존’

매장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입구에는 ‘브랜드 팝업존’이 자리 잡았다. 편의점의 얼굴 격인 이 공간을 과감하게 외부 브랜드에 내어준 점이 이색적이다. 첫 주자는 1020 여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뷰티 브랜드 ‘어뮤즈’와 패션 플랫폼 ‘W컨셉’이다.

이곳에서는 장원영 틴트로 유명한 ‘베베틴트’ 등 어뮤즈 제품 31종을 직접 바라보고 구매할 수 있다. W컨셉의 PB 브랜드 ‘프론트로우’ 의류와 겨울 시즌 패션 잡화도 진열돼 있다. 이마트24는 이 공간을 3개월 주기로 교체하며 뷰티, 패션, 캐릭터 등 영역에 구매받지 않고 가장 핫한 브랜드를 소개할 계획이다.

◆덕후들 심장 저격하는 ‘이벤트존’ & 미식이 홀리는 ‘스타상품존’

매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덕심’을 자극하는 ‘이벤트존’이 나타난다.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와 협업한 단독 굿즈 18종을 포함해 아크릴 스탠드, 디오라마 등 40여 종의 굿즈가 빼곡하다. ‘귀멸의 칼날’, ‘최애의 아이’ 등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 IP 굿즈도 만날 수 있어 ‘덕후’들의 성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편 ‘스타상품존’은 이마트24 맛의 자존심을 건 공간이다. 신세계푸드와 협업한 ‘서늘대빵’, ‘시선강탈 버거’는 물론 조선히otel 손종원 셰프, 최현석, 여경래 등 스타 셰프들과 공동 개발한 프리미엄 도시락과 간편식이 진열돼 있다. 특히 12월 출시 예정인 손종원 셰프의 ‘패밀리밀’ 간편식 4종을 이곳에서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스타상품존은 이마트24의 상품 개발 역량을 총동원한 킬러 콘텐츠”라며 “이 곳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 고객 반응을 먼저 살핀 뒤, 전국 매장으로 확대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0원’ 커피·스무디... 가성비 카페 ‘투고 카페’

고물가 시대, 가성비비를 찾는 ‘알뜰족’을 위한 ‘투고 카페(To-Go Cafe)’ 존도 눈에 띈다. 프리미엄 커피머신을 활용해 아메리카노, 라떼 등 다양한 커피 메뉴를 3000원 이하에 제공한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인 과일 스무디도 3000원대에 즐길 수 있다.

커피와 결들일 수 있는 베이커리는 물론, 닭강정, 피자, 핫도그 등 매장에서 갓 조리한 듯한 퀄리티의 ‘인소싱 상품’도 처음 도입했다.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성수 상권 특성을 반영한 ‘CVS존’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K-라면, 바나나우유 등 인기 상품과 함께 인근 푼키지 프리 식당 수요를 겨냥한 와인·위스키 특화 매대가 마련됐다. 와인 추천 앱 ‘비비노’ 평점 3.8점 이상의 검증된 와인과 하이볼 DIY 키트 등을 갖춰 ‘혼술족’과 ‘파티족’ 모두를 공략한다.

◆내년 신상만 600개... 2026년 ‘상품 혁신’ 원년으로
이마트24는 이번 성수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4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K-컬



이마트24는 이번 성수점을 시작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추가로 열고, 1030세대가 먼저 찾는 편의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트릭컬 리바이브’ 등 굿즈가 나열돼 있는 이벤트존.



이마트24 제품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스타상품존’

입구엔 3개월마다 바뀌는 ‘브랜드 팝업존’
스타셰프와 개발한 푸드제품 ‘스타상품존’
가성비 커피·스무디 등 ‘투고카페존’ 등
트렌드 발굴, 특색있는 편의점으로 도약

처, 디저트·텔리 등 각 지역과 상권 특색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트렌드연구소’를 가동해 7대 키워드(헬시, 트렌드플레이버, 디저트, IP, 뷰티, 꿀조합, 제철/로컬)를 중심으로 트렌드를 발굴하고, 2026년에는 총 600종의 차별화 신상품을 쏟아낼 계획이다. 전체 운영 상품 2500여 개 중 약 1000개를 트렌디한 신상품으로 채워 편의점의 체질 자체를 바꾼다는 전략이다.

최진일 이마트24대표이사는 “트렌드랩 성수점은 이마트24의 미래 비전을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가장 트렌디하고 힙한 브랜드와의 협업, 차별화된 상품 혁신을 통해 ‘1030세대가 가장 먼저 찾는 편의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패스성공률 94%’ 이강인, 교체 출전에도 토트넘전 평점 7점대
▲음바페, 6분42초 만에 해트트릭...UCL 역대 ‘최단 시간 2위’
/사진 뉴시스

▲‘세계 최강 여성’ 사실...성전환 선수로 인정돼 실격
▲포트2 기빠하긴 일러...홍명보호, 월드컵 ‘죽음의 조’ 피할까

▲‘김재환과 결별’ 두산, 필수 과제로 떠오른 외야 리빌딩
▲남자 하키, 벨기에에 패배...술탄 아즐란샤컵 국제대회 3연패